

인도자 지침서

부르심: 구별된 자의 삶과 사회 정의의 실천

팻회르트(Pat Hoerth), 베키 dots 라우터(George McClain) 공저



〈부르심: 구별된 자의 삶과 사회 정의의 실천〉 -
지침서: 베키 도슨 라우터, 패트 회르트

© 2013 모든 판권은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가 가지고 있음. -

이 책의 어떤 부분도 복사, 복제 기타 어떤 방법으로든 -
1976년 저작권 법에 의거해서 -
출판사의 서면 동의가 없는 한 불법 사용을 금합니다. -

이 인도자용 지침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표시한 경우에 한해서 내용 전체 -
혹은 일부를 상업적인 목적이 아닌 경우에 허락 없이 복사해서 사용할 수 있 -
습니다: **From Leader's Guide: *The Call: Living Sacramentally, Walking Justly*** © 2013

United Methodist Women. All rights reserved. Used by permission. Scripture
2013 United Methodist Women. All rights reserved. Used by permission.

Scripture quotations are from New Revised Standard Version Bible, copyright © 1989
National Council of the Churches of Christ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Used by permission. All rights reserved.

목차

인도자 지침서 서론	1
제 1과 하나님의 선물: 세례식을 통해 불려지고 주어진 자아 정체성	4
(부르심: 거룩한 자의 삶과 사회 정의의 실천 1장)	
제 2과 하나님의 선물: 성찬을 통해 힘주시고 계속 공급하시는 은혜	16
부르심: 거룩한 자의 삶과 사회 정의의 실천 1장)	
제3과 부르심에 응답함 1부: 매일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	27
(부르심: 거룩한 자의 삶과 사회 정의의 실천 2장과 4장)	
제 4과 부르심에 응답함 2 부: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돌보는 일	36
(부르심: 거룩한 자의 삶과 사회 정의의 실천 3장과 5장) -	
참고 도서 목록	45
저자 소개	48
부록:삶의 경건훈련계획표	49

인도자 지침서 서론

이 지침서의 목적은 개인들 혹은 그룹들이 부르심: 거룩한 자의 삶과 사회 정의의 실천 교재를 소화하는 것을 돕기 위해 영적인 도구들을 제공해 주는 것이다. 여기에 소개되는 도구들이나 활동들은 신앙 여정에서 우리들을 도와줄 것이다. 비록 우리들은 모두 바로 뛰는 것부터 시작하고 싶지만, 처음에는 뒤집기부터 시작해서 기다가 뒤뚱거리면서 걸음마를 배우고 시간이 지나면서 강건해지고 튼튼해진 다리로 나중에 가서야 뛰게 되는 어린 아이의 모습을 생각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영적인 성장에 있어서도 우리들은 “다리를 튼튼히 하는 일”을 위해 성경과 전통의 기초로 돌아가는 동시에 하나님과 홀로 하는 시간을 통해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하면서 다시 전진할 수 있게 된다. 우리들은 하나님 안에 우리들의 뿌리를 내리고 지금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어디로 부르시고 있는지를 분별하도록 우리들을 돕는 영적인 수단들이 필요하다. 이러한 매일의 훈련이 우리들이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이 용어는(Kingdom이 아니고, Kin dom)으로 이 교재에서 하나님의 공평하신 통치를 표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단어임 속에서 정의로운 일에 참여하는 것을 도와줄 것이다.

이 책에서 우리 저자들은 우리의 영성을 깊게 하여줄 수 있는 도구들과 좋은 예들을 보여줄 것이다. 우리들이 바라기는 독자들이 모임의 인도자로서 이 인도자 지침서를 사용할 때 모임에서 할 수 있는 활동들에 필요한 번뜩이는 아이디어들을 얻었으면 하는 것이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참가자용 교재에 제시된 활동들과 토론들은 물론 여기 더 확장된 온라인 인도자 지침서가 본문을 소화시키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다. 세례식과 성찬식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깊게하는 것이 우리들이 사회 정의를 실천하고 개인 혹은 공동체로서 세상을 바꾸는 일을 하는 것을 도와줄 것이다.

준비할 일들

이 과목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교재를 읽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훈련을 실제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들은 인도자들이 모임에서 참가자들을 인도하기 전에 본인이 이 활동 들을 실제로 해보기를 권한다. 이 과목을 인도하기 위해 준비하는 동안 직접 성경 본문을 읽고 그 본문을 놓고 장면들을 떠올리고 자신의 세례를 기억해 보고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셨던 것을 생각해 보는 등 말씀 묵상 기도(lectio divina)를 정말로 해보라는 것이다. 모임을 인도하는 날까지 할 수 있는 한 오랫동안 매일 성찰을 실제 실천해 보라. 자신의 소명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자신의 가슴을 뛰게 하시는지 생각해 보라. 독자들이 스스로 영적인 훈련을 깊이 할 때에만 다른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인도할 준비가 될 것이다.

또한 인도자로 스스로를 준비하기 위해서 선교 학교에 참여할 것을 권한다. 이것은 독자들이 가르치는 모임에서는 절대 경험할 수 없는, 참가자의 입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각 과에 필요한 자료들

각 과의 앞 부분에 필요한 자료들에 대한 항목들이 있다. 일반적으로 참가자들이 필요한 것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 성경책
- 찬송가와 복음성가집 혹은 찬양 모음집
- 적을 수 있는 종이나 공책
- 활동에 필요한 종이 (보통 편지지 크기의 종이면 됨)
- 문방용구 (펜이나 색연필이나 오래된 잡지나 가위나 풀이나 여러 색 마커들)
- 칠판이나 분필 혹은 대용품, 그리고 뉴스 프린트. (벽에 붙일 수 있는 것이 좋다)
- 목상 일기 공책 (주최 측에서 나누어 주든지 각자 가져오라고 미리 광고할 것)

추천사항: 만약 참가자들에게 미리 연락할 수 있으면 각자 자기의 세례를 상징할 수 있는 물건들을 하나씩 가져오라고 미리 이야기해서 제 1과에 사용하면 좋다.

자료들을 고르고 활동을 생각하는 동안 참가자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생각해 보고 동시에 다음과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보는 것이 좋다:

- 물건이나 사진들을 고를 때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의 다양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마음을 써야 한다 (예를 들어서 인종, 문화, 나이, 성별 등)
- 각 사람이 개성이 있으며 우리 모두는 자신들을 다르게 표현하고 다른 방식으로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마음에 새겨라. 글을 쓰게 하고 (목상 일기) 말을 하게 하고 (모임에서 나눔) 시각적인 도구를 사용하는 것 (만들기나 그리기 등) 등의 방법들은 사람들에게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방식으로 자신들을 표현하는 길을 제공해 주는 것이다.
- 항상 할 일은 많고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을 신경써야 한다. 그래서 이 과에서 핵심되는 내용을 가장 잘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되는 활동들만 골라야 한다. 동시에 참가자들의 주의를 계속 집중시키기 위해서 활동이나 방식들을 수시로 바꾸도록 한다.

필요한 장비들

필요한 장비는 어떤 활동을 할 것인가에 달렸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컴퓨터 (사운드 시스템이 있는 것)와 프로젝터 그리고 스크린 정도가 필요한 것이다.

찬송가와 복음성가집

이 온라인 인도자 지침서에는 온라인 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비디오와 음악 사이트들이 소개되어 있다. 어떤 찬송들은 한인 연합감리교회 찬송가 [찬송과 예배], 연합감리교회 찬송가, 다락방 예배서, 그리고 연합감리교회 복음성가집(The United Methodist Hymnal, Upper Room Worshipbook, The Faith We Sing)에 수록되어 있다. 한가지 기억할 일은 어떤 음악이나 노래나 영상이나 인쇄물이든지 복사해서 쓰거나 화면으로 보여주거나 할 때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고 사용허가를 얻는 것은 본인 스스로가 지켜야 될 법적인 의무라고 하는 점이다.

예배 장소

예배 장소에는 [위십 센터로] 테이블을 하나 준비하고 아름다운 천과 초와 성냥 아니면 전기 초로 장식해 놓으면 좋다. 각 과의 모임을 위해서 새로운 것들을 하나씩 첨가할 것이다.

각 과에서 할 활동을 정하고 계획하는 일

각 과에서 정해진 시간 동안 어떤 활동을 할것인지 인도자들이 계획하기에 편리하도록 각 활동에 필요한 예상 시간이 주어져 있다. 그러나 실제 사용되는 시간은 각 그룹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달라질 것이다.

다양한 활동의 선택 여지가 첫 번 모임을 위해 주어져 있다. 첫 번 모임은 사람들이 처음 모이는 시간이기 때문에 서로를 알고 이 공부 내용을 알아가는 시간이다. 참가자들이 아직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않다. 네 번 째 모임 정도가 되어야 사람들은 더 생각하고 내용도 소화하게 될 것이다. 이 공부에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 되면 활동의 선택 여지가 많지 않을 것이다. 인도자들도 의도적으로 토론과 질문과 묵상을 위한 시간을 주면서 참가자들이 이 공부를 하는 동안 경험했던 영적인 성장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제 1 장

하나님의 선물: 세례식을 통해 불러지고 주어진 자아 정체성

준비

이 서론에 있는 “각 과를 위한 자료들” 이외에도 각자 음악을 고르고 필요한 찬송가나 복음 성가집을 구해서 (물론 허락을 받아서) 복사해서 사용하도록 한다. 특히 한국 분들의 경우에는 미국 찬송가가 적합하지 않으면 한인 연합감리교회 찬송가인 [찬송과 예배]나, 한국 찬송가나, 복음성가를 준비한다.

세례식에 적합한 곡들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좋다:

미국 연합 감리 교회 복음송가집(The Faith We Sing)에서:

- “나는 네가 태어나는 울음 소리 낼 때 거기 있었다(I Was There to Hear Your Boring Cry),” 2051 장
- “물을 건너 (Wade in the Water),” 2107장
- “물과 강과 영과 은혜(Water, River, Spirit, Grace),” 2253장

다락방 예배서(Upper Room Worshipbook)에서:

- “물이 우리를 받치고 있네(Water Has Held Us),” 187 장

한인 연합감리교회 찬송가, 찬송과 예배 (Come, Let Us Worship)에서:

- “첫 아침처럼”(Morning Has Broken)

이 책들을 사용하는 대신에 복사해서 쓰거나 프로젝터를 쓸 경우에는 반드시 저작권료를 내고 사용하기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또한 그룹에 있는 각 사람들을 위해서 봉투를 준비해야 한다. .

다른 음악들

성경 말씀을 읽고 상상 기도와 함께 묵상을 할 때 사용하려면 아이튠에서 “어떻게 아무나?(How Can Anyone?)”하는 노래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가격은 \$.99이다.)

가사와 곡은 리비 로데릭(Libby Roderick)이 만들었고 노래는 샤이나 놀 (Shaina Noll)이 불렀다.

다른 자료들

탁자 위에 놓는 분수대나 아니면 물이 흐르는 소리를 녹음해서 틀어 놓고 예수님의 세례식에 관한 상상 기도 시간에 사용해도 좋다.

나는 걸음을 늦추고 거기에 빠져들면서 크게 감동을 받았다. 분명 그 아이들은 자기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 예식의 거룩함과 능력, 그리고 성령의 임재 하심에 본능적으로 반응하고 있었다. 나는 이 두 작은 아이들이 우리 모두에게 아주 자연스러운 일, 즉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의미에 반응하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기독교 교회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예식을 통해서였다는 점에 크게 충격을 받았다.

예배 장소

예배 장소 가운데에 놓인 테이블에 물이 담긴 그릇을 놓는다. 세례를 상징하는 물건이나 세례식 때의 사진을 준비해서 테이블에 올려 놓을 수도 있다. 상징물로는 조개껍질이나 세례식 초, 아니면 유아 세례용 가운, 그리고 세례 예배 때 사용하는 찬송곡 등이 있을 수 있다.

만약 개인적인 세례 사진이 없거나 아니면 사진이 있어도 더 다양한 사진을 사용하고 싶다면 여러 세례식 사진이 온라인에 올라와 있다. 복사하기 전에 저작권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한다. 다음의 사이트에 가서 사진이나 이미지들을 찾아 볼 수 있다: <http://tinyurl.com/c7ly3cl>.

어린이들과 다세대 그룹들을 위한 자료들

만약 어린이 자료나 다세대 그룹을 위한 자료를 찾고 있다면 콕스베리 서점 (Cokesbury) 을 통해서 구할 수 있는 다음의 자료들을 고려해 보라:

- 물을 만지고 빵을 맛보라: 예수님의 세례에 관한 이야기책 (Touch the Water, Taste the Bread: A Storybook About Jesus' Baptism) 다프나 플레갈 (Daphna Flegal) 지음: 4살에서 8살 된 아이들을 위해 만들어진 자료인데 아이들이 예수님의 세례 이야기를 통해서 세례의 중요성을 발견하도록 하는 길을 제시해 준다.
- 물아, 흘러 내려라! 당신이 세례 받던 그 날 (Water, Come Down! The Day You Were Baptized) 월터 완거린 (Walter Wangerin, Jr) 지음: 하나님의 자녀가 세례를 받을 때는 어떻게 온 세계가 가족들과 친구들의 기쁨에 참여하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 책.
- 나는 하나님에게 속하였다 (I Belong to God) 캐롤린 탠너 (Carolyn K. Tanner) 지음: 이 책은 6과에 걸친 다세대를 위한 세례 공부 교재인데 우리가 세례 때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개념을 성경 이야기와 음악과 공작, 퀴즈, 선교 교육 등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해준다.

제 1과 서론

인도자 지침서의 첫 두 과는 교재의 제 1장과 함께 사용하게 되어 있다. 첫과는 세례를 다루고 있는데 교재의 해당 페이지를 찾아 보기 바란다. 둘째 과는 성찬식을 다루게 되어 있는데, 역시 교재의 해당 페이지를 찾아 보기 바란다.

그 핵심에 있어서 세례식은 과감한 행동이다. 우리들은 창조의 이야기에 올려 퍼진 것과 같은 바로 그 울림으로 인치신 바 되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정말로 보시기에 좋았다” (창세기 1:31). 하나님은 우리들이 세례를 받을 때 우리들을 다시 인정하시는 말씀을 하신다. 그래, 나는 너를 나의 것이라고 선포한다. 너에게 무슨 일이 생기든지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구원하며 너에게 바른 마음을 가지게 할 것이다. 너를 내 팔에 안고 너의 아름다움과 너의 독특함을 인하여 기뻐할 것이다 (본문 중에서)

맥클레인(McClain)과 노르백(Norberg)은 “세례식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르는 것의 중요한 채널이다”라고 쓰고 있다. 제 1장에서 자세하게 소개된 연합 감리 교회의 세례 예문은 우리가 사회 정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사람들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의 중요성과 연결성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제 1과의 목표는 우리들이 사랑받는 자녀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깊이 알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의 세례의 경험을 마음에 새기도록 초청하고 그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와 맺은 우리의 언약에 헌신하고 재 헌신하게 하는 것이다.

모임에의 초대

인도자: 우리들은 물의 사람들입니다!

참가자들: 우리들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의 사랑이 넘쳐나서 우리들이 고향이라고 부르는 이 물로 풍성한 별과 푸른 지구를 만드셨습니다.

인도자: 우리들은 물의 사람들입니다!

참가자들: 우리들은 하나님을 예배 합니다. 그의 넘치는 사랑은 소나기처럼 내리고 강물처럼 흘러 바다를 채웁니다.

인도자: 우리들은 물의 사람들입니다!

참가자들: 우리들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 분은 우리의 세례식 때 물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받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

인도자: 우리들은 물의 사람들입니다!

참가자들: 우리들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의 사랑은 우리들의 가슴에 차 올라서 다른 이들의 가슴으로 흘러 넘칩니다.

인도자: 우리들은 물의 사람들입니다!

참가자들: 우리들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의 사랑은 모든 생명을 지탱해 주는 물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우리가 생명을 줄 수 있게 합니다.

다함께: 하나님의 사랑은 물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강물처럼 흐릅니다. 우리들은 물의 사람들입니다

찬양

인도자가 미리 골라놓은 세례에 관한 찬양을 부른다.

여는 기도 (한 목소리로)

놀라우신 은혜의 하나님, 여기 함께 모인 시간동안, 저희들이 세례식과 성찬식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이 그런 이해로부터 흘러나와 당신이 항상 함께 하는 성례전이 되게 하옵소서. 세례식 때 저희를 불러주시고 성찬식 때 저희를 먹이신 것을 통해 저희가 세상에서 사랑과 정의가 되라고 부르신 저희의 공통된 사명을 이해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저희 각자가 그 부르심대로 살아갈 수 있는 각 사람의 길을 이해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공부를 통해서 당신 안에 있는 삶의 자유와 기쁨을 더 깊이 경험하도록 저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창조주, 능력의 주님, 생명을 주시는 분, 공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저희가 구별된 삶을 살고 사회 정의를 실천하게 도와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가자 소개 (30 분)

(이 활동은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들의 이야기를 성경에 연결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전체 그룹에 설명을 할 때 우리의 이름들이 공동체 안에서 처음으로 불려졌다는 점을 말해준다. 그리고 나사렛 예수의 세례 이야기에서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졌으며 하나님이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는다는 것을 설명해 준다.

자신을 소개하는 방법 중의 하나로 참가자들에게 자신들이 세례식 때 불려 졌던 이름을 생각하게 한다: 이름, 중간이름, 성. 그러나 사람들이 보통 자신을 부르는 이름이 줄여서 부르는 이름이나 별명인 경우에는 그것을 이야기한다. 자기 이름 뒤에 숨은 이야기들, 즉 전통이나 문화 등에 대해 간단하게 이야기

하도록 하고 자기 이름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야기하게 한다. 만약 참가자 중에 자기 세례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가져온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예배 실 중앙 탁자에 가져다 놓게 한다

규칙 (5 분)

인도자로서 전체적인 목표 중의 하나는 각 개인이나 그룹이 가지고 있는 염려들을 사랑과 격려하는 마음으로 나누어서 참가자들에게 믿음을 주고 걱정을 줄여 주는 일이다. 규칙을 정하는 일은 이 목표를 달성하는데 종종 도움이 된다. 여기 몇 가지 규칙들을 제안하고 있는데 그룹 내에서 자기들 스스로의 규칙들을 정하도록 장려할 수도 있다.

다음의 규칙들은 우리들이 함께 지내는 동안 서로를 어떻게 대접해야 되는지에 관한 최선의 의도를 반영하고 있다:

1. 우리들은 항상 안전하고 서로를 성장하도록 돕는 환경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인도자들은 이 과정을 원활하게 할 책임을 진다.
2. 어떤 참가자든지 원치 않거나, 혹 마음이 편하지 않은 때에는 참가자가 의견을 발표해야 한다는 부담을 갖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한다.
3. 우리들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진지한 노력을 하며 대답하기 전에 다른 사람의 관점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한다.
4.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이 말하거나 의도하는 것을 이해한다고 전제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다른 사람이 말하는 뜻을 더 분명히 알려고 노력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질문을 할 수도 있다.
5. 우리들이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눌 때는 반드시 비밀을 지켜 준다.
6. 우리들은 공격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표현되는 반대의 표현 (찬성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기회)을 존중한다.

성경 봉독: 예수님의 세례, 마가복음1:9 11 (20 분)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의 방식을 따라서 다음 본문을 읽도록 한다.

그 무렵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오셔서, 요단 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예수께서 물 속에서 막 올라오시는데,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표준 새번역)

인도자가 본문을 그룹에게 큰 소리로 읽어 주거나 세 사람이 그 과정을 세 단계로 나누어 읽을 수 있다. 참가자용 책에 있는 본문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개인이 가져온 성경을 사용할 때는 같은 번역본을 사용하도록 한다.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를 어떻게 하는지를 먼저 설명한다. 지침을 보면 묵상 일지를 쓰거나 자신들의 응답을 나누도록 되어 있다. 어떤 나눔도 성스러운 신뢰 속에서 지켜 지고 나눔에 대한 그룹 멤버의 응답 (거기에 대한 반응)은 하지 않는다.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 지침

렉시오 디비나 (Lectio Divina)는 “거룩한 독서”라고 부르는 본문 읽기이다. 그 본문은 성경일 수도 있고 다른 저작물일 수도 있다. 우리들은 인도자가 본문을 읽기 전에 세 단계 모두를 완전히 설명하기를 권한다. 그런 다음에는 한 번 읽을 때마다 무엇을 해야 되는 지 간략하게 (아래 설명된 것처럼) 다시 언급해 주면 충분하다. 매번 응답은 의무가 아니라 초청이라는 것을 강조해야 한다.

1단계. 낭독자는 천천히 그 본문을 소리내서 읽으면서 사람들이 그저 듣기만 하도록 한다. 그리고는 일 이분 정도 침묵한다. 낭독을 하고 난 다음에 인도자는 단지 참가자들에게,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용히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라고 말하면 된다.

2 단계. 낭독자는 그 본문을 다시 한 번 소리 내어 읽는다. 어떤 단어나 구절이 와 닿을 것이다. 주의를 끄는 단어나 구절이 있는지를 주목하라. 그리고 일 이분 침묵한다. 그리고는 참가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초청한다. “여기서 당신에게 강하게 다가오는 단어나 구절이 있습니까?” 그들이 한 번에 한 사람씩 응답하도록 하되 크게 말로 할 수도 있고 조용히 그 단어나 구절을 적도록 할 수도 있다.

3단계. 낭독자는 그 본문을 천천히 세 번째로 읽는다. 그리고는 참가자들에게 약 2-3분간 침묵하게 한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이 시점에 필요한 그 본문의 의미를 알게 해달라고 구하라고 권한다. 침묵 이후에 사람들에게 한 번에 한 명씩 응답하거나 묵상 일지를 쓰도록 한다. 나눌 때 왜 그것이 자신에게 다가오는지 한두 문장으로 간략하게 설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묻는다. “어떤 구절이 당신에게 의미가 있었습니까? 왜 그런지 나누어 주세요. 그 구절이 오늘날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은 전체 그룹에서 할 수도 있고 두 세 사람이 함께 할 수도 있다.

추가로 할 수 있는 일: 만약 그룹 나눔이 잘 되면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나누는 것들을 가지고 자신의 오른편에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초청할 수 있다. 아니면 참가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게 할 수 있다. 논지를 한두 문장으로 간략하게 설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묻는다. “어떤 구절이 당신에게 의미가 있었습니까? 왜 그런지 나누어 주세요. 그 구절이 오늘날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은 전체 그룹에서 할 수도 있고 두 세 사람이 함께 할 수도 있다.

우리의 상상을 통해 성경 묵상하기 (20 분)

관상 기도는 기독교 전통에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한 가지 방법이다. 이 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스스로 원고를 읽고 단어들에 익숙해지도록 한다. 모임에서는 원고를 큰 소리로 읽되, 듣는 이들에게 장면을 생각할 시간을 준다. 그리고 원고에 나와 있는 대로 쉬라고 하는 때에 쉬는 것이 중요하다.

탁자 위의 분수를 작동시켜 놓거나 아니면 미리 녹음해 놓은 물 흐르는 소리를 배경으로 작게 틀어 놓아서 낭독하는 동안 들리게 한다.

본문 저자들이 “당신의 기도 생활을 풍성하게 하는 방법들”이라고 난외에 적은 기도 방법들 중의 하나가 “관상기도”이다 (위의 본문 참조). 하나님께서 주신 상상력을 사용해서 우리들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주는 장소에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다. 천천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본문을 따라간다. 만약 독자들이 그룹으로 함께 한다면 인도자가 본문을 읽을 때 귀를 기울여 듣도록 한다.

자신이 요단 강에 있다고 상상하라. 삶의 여러 상황들에 지쳐서 도시에서 멀리 떠나와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광야로 여행을 나왔다. 어떤 사람이 있는데, 당신은 그가 사람들을 강물에 담그면서 그들이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를 회복하도록 돕는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것은 당신에게도 바람직한 것으로 들렸고 당신은 이제 그 강에 와있다. 깨끗한 사막의 공기를 들며 마셔보라. 그것이 건조한가? 먼지가 나는가? 코가 싸한가? 달콤한가?

(멈춤) -

물을 보라. 그 색을 관찰해 보라. 푸르고 맑은가? 흙탕물인가?

(멈춤) -

강가에 심겨진 나무들 사이를 스치며 부는 산들바람 소리를 들어보라. 강에서 물이 흐르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가? 요단강가의 조용한 목소리들을 들어보고 요한을 보라. 물 속에 서서 사람들을 붙잡고 강물에 그들을 담그고 있는 모습을 보라.

(멈춤) -

또 다른 사람이 강에서 나오면서 그 얼굴에 묻은 물을 닦아 내며 물에 젖어 무거운 옷 때문에 천천히 걸으면서 강변으로 나올 때 물이 찰삭거리는 소리를 들어 보라.

(멈춤) -

당신은 관찰하면서 당신 자신도 그 물에 들어가기를 원하는지 생각해 보라. 당신이 어떻게 느끼는지를 주목해 보라. 당신도 그 강에 들어가기를 원하는가? 망설이고 있는가? 당신은 두렵지만 그래도 물로 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가? 아니면 간절히 원하는가? -

(멈춤) -

이제 한 남자가 강으로 들어가서 요한에게로 간다. 당신은 그 남자에게 주목한다. 그것은 아마도 그가 요한에게 가는 모습 때문에, 아니면 그의 얼굴 표정 때문이었을 것이다. 아니면 그를 바라보는 요한의 표정 때문이었을 것이다.

(멈춤)

그 남자와 요한은 서로 말을 주고 받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는 요한이 그 남자를 물 속에 담근다. 요한이 그를 물에서 다시 들어 올릴 때 당신은 그 남자에 관해 다른 면을 보게 된다. 어떤 감정이 당신을 뒤덮는다. 당신은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

(멈춤)

당신은 그 남자가 강가로 나와서 더 이상 보이지 않을 때까지 강변을 걸어가는 모습을 바라본다.

(멈춤)

어떤 이유에서 인지 이제 당신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는다. 그리고 물속으로 들어가서 요한에게 다가간다. 요한은 당신의 등과 머리 뒤에 자기 손을 대고 당신을 물 속에 담근다. 갑자기 당신은 물에서 솟구쳐 올라오면서 전에 느껴본 적이 없는 감정에 휩싸인다. 당신은 부드럽게 말하는 목소리를 듣는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이다.” 당신은 당신의 이름이 불려지는 것을 듣는다: “야, 나는 너를 아주 기뻐한다.”

(긴 멈춤)

당신은 어찌어찌해서 강변으로 돌아와 강둑에 앉아 있는 자신을 본다. 햇볕과 따스한 바람이 몸을 말려주고 있다. 당신의 이 경험이 당신의 자신 속으로 깊이 스며들어 가고 있다. 당신은 계속해서 그 말을 되새기고 있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이다.” 당신은 당신의 이름이 불려지는 것을 듣는다: “야, 나는 너를 아주 기뻐한다.”

(긴 멈춤)

묵상 (10 분)

참가자들에게 이 관상 기도의 경험에 관하여 다음의 질문들을 생각해 보고 글을 쓰도록 한다:

- 당신은 무엇을 경험하셨습니까?
- 이 기도는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 이 관상 기도가 당신의 세례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가져다 주었습니까?

우리의 이야기를 교회 공동체의 하나님과 연결하기 (25 분)

이 활동은 참가자들이 자기들의 세례와 하나님과의 언약과 교회 공동체를 연결시킬 수 있도록 생각을 유도하는 것이다.

감리교 전통에 있어서는 물을 뿌리거나 붓거나 물에 완전히 들어가게 하는 세 가지 방식이 다 세례의 방법으로 허락되어 왔다. 우리들은 세례가 물과 성령으로 받는 것이라고 믿는다. 회중도 한 사람이 세례 받을 때 구경꾼이 아니라 온전한 참여자라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전체 모임 혹은 소그룹을 위한 질문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개인적으로 묵상한 후에 전체 모임에서 나누도록 할 수도 있다. 개인적인 묵상이나 (소그룹 혹은 전체 그룹) 모임 토론이 있는 후에는 사람들에게 창조주 하나님께 혹은 예수님께 혹은 성령 하나님께 편지를 쓰게한다. 그 편지에 자신들이 현재 자기 삶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랑하는 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내고 있는지를 새로운 언약으로 표현하게 한다. 그리고 그 언약은 끝마치는 예배의 일부로 사용한다.

사람들에게 토론을 시작하도록 이런 식으로 말할 수도 있다:

자, 이제 우리들은 우리가 사랑받는 사람들인 것과 우리의 이름을 불러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우리들의 교회 식구들과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은 성경에 나오는 선조들이 그랬듯이 우리들이 하나님께 신실하며 서로 서로에게 성실할 것을 약속하도록 은혜로 도우며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가지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본문 중에 나오는 세례 언약에 관한 내용을 참조하기 바람)

묵상

만약 당신이 이미 세례를 받았다면 다음의 질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 당신의 세례는 어떠했습니까?
- 당신은 세례 재확인 의식이나 “당신의 세례를 기억하고 감사하십시오” 하고 말하도록 권하는 언약 의식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 그 언약이 당신에게 지금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 만약 당신이 매일 매일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것을 의식하고 살아간다면 당신의 삶은 어떤 모습일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 만약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불러 주시고 당신을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 하시고 당신에게 이 세상에서 사랑이 되라고 부탁하셨다는 것을 의식 한다면 당신의 삶은 어떤 모습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만약 당신이 세례를 받지 않았다면 다음과 같은 질문을 생각해 보십시오.:

- 당신이 왜 세례를 받지 않았는지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 오늘날 세례 받는다는 것은 당신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참가자들에게 본문에 나오는 래리의 세례 이야기를 읽도록 한다. 우리들의 이야기는 물론 다를 것이다. 참가자들에게 자신들의 세례 경험을 묵상 일지에 적도록 시간을 준다. 어떤 “정답”도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사람들이 현재의 상태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생각이나 느낌에 관해서 적어 보라고 생각할 시간을 준다.

우리의 세례 언약 속에 있었던 소명을 깨닫는 일 (20 분)

본문에 이렇게 써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들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면 그 어떤 것에도 저항하고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라고 부르심을 받았다. 얼마나 자주 우리들은 우리가 힘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불의에 눈을 감았는가! 우리의 세례 서약은 우리들이 스스로 언약하다고 자책하면서 뒤로 물러서고, 인간의 생명을 해치는 그 어떤 것 앞에서도 포기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또한 우리들은 우리 자신의 파괴적인 습관과 충동에 스스로를 내 몰아서도 안된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치유를 간구하는 일을 결코 멈추어서는 안된다.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와 능력”을 결코 거절해서는 안된다. 웨슬리는 이것을 “거룩한 삶”을 위한 절대 명령이라고 불렀다. 다시 말하면, 우리들은 사회정의를 실천하도록 불림받은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살 때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Amazing Grace)”의 진영에 속하게 되는 것이다.

참가자들이 세례의 능력을 더욱 깊이 실감할 수 있도록 초청해야 한다. 우리의 세례 예문에서 다음과 같은 말들을 읽어주라:

당신은 악한 영들의 세력에 저항하며, -
이 땅의 모든 악한 힘들을 물리치고, -
당신 자신의 죄를 회개하겠습니까?!

다음의 질문들을 생각해 보라:

- 당신은 “이 세상의 악한 세력들”에게서 비롯된 부정에 관심을 가져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세례 언약 속에서 듣고 있습니까?
- 당신은 우리들도 그 일부가 되어 있는 제도적인 악의 형태에 맞서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까?
- 당신은 세례가 “악과 불의에 저항하는” 능력의 근원임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세례 예문을 가지고 하는 묵상 기도(LECTIO DIVINA) (15분)

당신은 악한 영들의 세력에 저항하며, -
이 땅의 모든 악한 힘들을 물리치고, -
당신 자신의 죄를 회개하겠습니까?²⁻

세례 예문에 나오는 이 부분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묵상 기도(lectio divina)의 세 단계 과정을 사용하려고 참가자들을 초청하라. 즉, 문장을 소리 내어 읽는 것을 듣고, 자기 마음에 와닿는 단어나 구절을 찾고, 하나님께 그 단어나 문장이 오늘 자신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알게해 달라고 기도한다. 참가자들에게 자기들의 경험을 묵상 일지에 쓰거나 소그룹에서 나누라고 격려한다.

우리의 반응: 우리의 언약 작성 (20 분)

참가자들에게 자신들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회와 맺고 싶은 언약을 생각해 보라고 한다. 참가자들에게 편지와 봉투를 주고 각자 창조주,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께 자기들의 마음에 느낀 언약을 적어보라고 권한다. 그것은 자신들의 삶 속에서 이 시대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겠다는 자기들의 약속이다.

마무리

물이 담긴 그릇에 손가락을 담갔다가 가슴에 댄 후에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 저 아무개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인 것을 다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자신이 하나님과 맺는 언약의 편지를 하나님께 바친다. “가장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는 당신과 또한 교회 앞에 다음과같은 삶을 살기로 언약합니다.” 언약편지 내용 첨부

마치는 찬송

“나는 네가 탄생의 울음을 울 때 거기 있었다”(연합 감리 교회 복음 성가집 The Faith We Sing, 2051 장) 원곡의 작사 작곡은 존 일비사커(John Ylvisaker)가 했다. (Website: www.ylvisaker.com). 유튜브에는 다양한 변주곡이 올라와 있는데 이런 것들을 공공 장소 에서 사용하려면 저작권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저작권이 있는지 없는지가 확실치 않으면 집에서 본 후에 모여서 함께 토론하도록 권하는 것이 좋다.

속제

본문 제 1 장을 읽을 것.

-
1. “세례 예문의 회중의 응답,” 연합감리교회 찬송가(The United Methodist Hymnal) (내쉬빌: 아빙돈 프레스, 1993), 50 쪽.
 2. 앞의 책.

제 2 과

하나님의 선물: 성찬으로 공급받고 유지되는 은혜

때때로 정치적인 박해와 잔인함과 불의 속에서 은밀하게 거행되는 성찬식은 모든 사람들의 존엄성과 정의의 강력한 메시지로 빛이 난다. 모든 사람이 여기서는 환영을 받으며 모든 사람들이 먹을 수 있다. 성찬테이블 주변에서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가 이미 임했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임했다.

매 번 우리들이 성찬 테이블에 다가올 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다양한 방법으로 드러날 것을 기대할 수 있다.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가 현재 있는 곳에서 우리들을 만나시기 위해 우리의 주의와 의식을 형성하실 것을 확신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할 일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움직임에 대해서 주목하면서 가능한 한 우리 자신을 열어 놓는 일이다. (본문 중에서)

모임에로의 초대

이 과가 거의 끝날 때 쯤이면, 깨어진 성찬기를 다시 온전하게 만드는 일을 하는데 두 가지의 선택이 있다. 종이로 할 수도 있고, 도자기로 할 수도 있다. 도자기를 사용 할 때는 깨질 수 있으므로, 별로 비싸지 않은 것으로 성찬기 비슷한 것을 사용하라. 예를 들면 성만찬의 잔과 같이 목이 긴 사기 잔 같은 것이면 된다. 플라스틱 봉지와 망치, 그리고 빨리 마르는 접착제도 필요하다. 마무리 시간에, 이 잔을 깎다가 다시 붙이는 일을 할 것이다. (안전을 위해서 유리로 된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또 다른 대안으로는 다음의 링크에 가서 깨진 성찬기 이미지를 프린트해서 조각조각 잘라서 사용하는 것이다. 그것을 붙일 테이프를 미리 준비한다.

예배 장소 준비

물그릇과 세례식의 상징이 되는 것을 놓고 목이 긴 사기 잔이나 아니면 깨진 성찬기 이미지를 프린트해서 액자에 넣어 탁자 중앙에 놓는다. 그 이미지는 다음 사이트에서 프린트하면 된다.

www.cohope.com/wp-content/uploads/2011/09/chalice_fb_large.jpg.

여기서는 희망공동체(Community of Hope)의 깨어진 성찬기의 이미지를 확대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

어린이들과 다세대 그룹들을 위한 자료들

만약 어린이들을 위한 아이디어들을 찾는다면 다음 자료들을 콕스베리(Cokesbury)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

- 성찬식은 무엇인가? 연합 감리 교회의 성찬식에 대해 배우기 리네티드(G. Lynette Reed) 지음. 9 살에서 12살 사이의 아이들이 예배의 기본적인 요소에 대해서 배우는 입문 시리즈의 하나.
- 와서 빵을 맛보라: 주님의 만찬에 관한 이야기책 다프테 리 플레갈(Daphna Lee Flegal) 지음. 어린이들에게 최후의 만찬의 “맛”을 보여주기 위해서 누가복음서의 성경 이야기를 다시 이야기형 식으로 하는 책.

제 2과 서론

제 2 과는 본문의 제 1 장 내용에 근거를 둔 것이다. 참가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성찬의 경험을 새롭게 하고 더 깊게 하도록 초청된다. 바로 그 하늘 양식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여금 매일 매일의 자신들의 삶에서 사회 정의를 실천하라는 언약에의 부르심을 계속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모임으로의 초대

인도자: 하나님은 광활한 밤 하늘 속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호랑나비의 눈부신 아름다움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아하게 뛰노는 산양들과 시에라 네바다(Sierra Nevada) 산맥의 웅장함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참가자: 하나님은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도자: 하나님은 병실에서도 감옥에서도 폭력이 행사되는 가정에서도 죽음의 침상에서도 이혼의 고통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참가자: 하나님은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도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식탁에 함께하십니다 교회 성전 안의 성찬 테이블에도, 가정의 식탁에도, 집없는 이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는 곳의 식탁에도, 학교 식당의 식탁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참가자: 하나님은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도자: 하나님은 우리가 정의를 위해 애쓸 때, 화해를 위해 노력할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배반하거나 실망시킨 이들과 함께 우리가 앉아 있을 때에
도, 우리 사회에서 목소리가 없는 이들과 함께 우리가 서 있을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참가자: 하나님은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도자: 빵 속에, 포도주 속에, 그리스도의 몸 속에, 사랑의 공동체 안에,

참가자: 하나님은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합니다

찬양

한 떡을 떼며 (찬송과 예배 237장)

여는 기도 (한 목소리로)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주님이 만드신 세상 속에서 언제나 그 사랑을 느낍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나사렛 예수의 삶과 가르침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음을 알고있습니다.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 것도 또한 잘 알고있습니다. 우리의 세례식 때 부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새롭게 깨닫게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들은 주님과 식탁을 함께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공부하려고 합니다. 이 공부를 통해서 우리의 깨달음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주님과 가까와 지고, 우리들이 서로 가까와 지고, 주님이 만드신 세상과 가까와 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공부: 마지막 만찬, 누가복음 22:7 20 (20 분)

1과에서 처럼 참가자들이 말씀 묵상(lectio divina) 방법을 통해 이 구절을 읽게 한다. 그리고나서 개인적인 묵상 내용을 묵상 일지에 적거나 소그룹 혹은 전체 그룹에서 오늘날 그것이 본인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지를 나누도록 초청한다.

그 때 유월절 양을 잡는 무교절이 되었다.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면서 말씀 하셨다. “가서 우리가 먹을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여라.” 그들이 그에게 물었다, “어디서 그것을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내 말을 들어 보아라,” 그는 그들에게 말하였다, “네가 도시에 들어가면 물둥이를 지고가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 사람을 따라 가서 그가 들어

가는 집에 들어가 집주인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선생님께서 당신에게 물어보십니다, 내 사랑방이 어디입니까? 내가 어디서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까?” 그는 너희에게 이층에 준비된 큰 방을 보여줄 것이다. 너희는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 하여라. 그래서 그들은 가서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였다. 시간이 되었을 때 그는 식탁에서 자기 접시를 받았고 제자들도 그와 함께 접시를 받았다. 그는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 너희들과 이 유월절을 지내기를 간절히 소망하였었다; 왜냐하면 내가 말하거니와 나는 이것을 천국에서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먹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컵을 들고 감사를 한 후에 말하였다. “이 잔을 들고 너희가 나누어 마셔라; 왜냐하면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까지는 내가 포도나무의 열매로 만든 것을 마시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빵 한 덩어리를 들었다. 그리고 감사한 후에 나누어 그들에게 주시면서 말씀 하셨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리고는 저녁 후에는 이와같이 잔을 가지고 행하시면서 말씀하셨다. “너희를 위하여 붓는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성호 옮김)

우리의 상상을 통하여 성경을 묵상하기 (20 분)

다음 내용을 참가자들에게 읽어 주어 그들이 예수님과 그의 친구들과 따르는 이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에 있는 것처럼 상상할 수 있도록 하라.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인도자가 먼저 읽어 보고 단어들과 표현에 익숙해지도록 한다. 참가자들에게 편한 자세로 눈을 감게 하고 (그것이 더 편하다면) 인도자가 천천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원고를 읽는 것을 들어 보라고 한다. 멈춤이라고 쓴 곳에서는 멈추어서 참가자들이 상상 속으로 들어가게 한다.

예루살렘은 바쁜 곳이다. 그 때는 순례자들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히브리 사람들을 애굽의 포로된 상태에서 이끌어 내신 것을 기억하기 위해 그 도시로 오는 시간인 유월절이었다. 나사렛 예수는 이 유월절 식사를 위해 예약을 해 두었다. 그 방은 방석과 카펫이 깔려 있었고 사람들이 비스듬히 누워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낮은 U 자 모양의 식탁이 차려져 있었다. 포도주와 무교병 그리고 쓴 나물이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서 의식이 진행되는 동안 정해진 시간에 양의 목을 따서 양을 잡았다. 그리고는 석류나무 장작 위에 구웠다. 등잔에는 기름이 채워졌다.

모든 것이 준비되고 어두운 방 안에 등잔이 켜지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 이처럼 어둡지만 따스하게 불이 켜진 방에서 개인적인 모임을 가지는 것을 상상해 보라.

(멈춤)

방석과 카펫의 색을 주목해 보라

(멈춤)

제자들의 얼굴을 보라. 그들의 옷가지와 문가에 벗어둔 샌들과 포도주와 음식 접시를 보라.

(멈춤) -

사람들이 방에 들어오면서 어떻게 서로 인사하는지 상상해 보라. -

(멈춤) -

여러 가지 섞인 냄새를 맡아 보라: 등잔 기름, 구운 양고기, 쓴 나물등

(멈춤) -

예수님이 거기 그들과 함께 계시는 것을 보라. 그는 어떻게 보이는가? 그의 외모는 어떠한가? 그는 자기 친구들과 어떻게 교제하고 있는가? -

(멈춤) -

사람들이 그 낮은 테이블 주변에 비스듬히 기대어 있는 모습을 관찰하라. 방안의 분위기는 어떠한가? 그들은 웃으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가? 조용한가? -

(멈춤) -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 방안에 느껴지던 긴장을 상상해 보라: “나는 내가 고통을 당하기 전에 이 유월절 음식을 너희와 함께 먹기를 간절히 원하였다. 왜냐하면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의 나라에서 유월절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내가 다시는 이것을 먹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멈춤) -

예수님이 컵을 들고 축사하신 후에 테이블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마시라고 말씀 하시는 것을 보라. 각 제자들이 그 컵에서 마시는 것을 보라.. -

(멈춤) -

그리고는 그가 무교병 한 조각 하나님과 히브리 백성들 사이의 옛 언약의 상징 을 들고 축사하시는 것을 보라. 그가 유월절 음식의 전통적인 의식대로 떡을 떼면서 이렇게 놀라운 말을 하는 것을 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멈춤) -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그 무교병을 나누면서 먹을 때의 표정을 보라. 현재 그 방의 분위기는 어떠한가? 제자들의 얼굴은 당신에게 무엇을 보여 주는가? -

(멈춤) -

저녁이 끝난 후 예수님은 컵을 드시고 말씀하신다: “지금 너희를 위해 부어지는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

(멈춤) -

잔이 각 사람에게 전달될 때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멈춤) -

이제 당신 자신이 예수님 옆에 기대어서 테이블에 있는 것을 보라. 무교병이 전달될 때 당신 자신이 거기서 한조각을 떼는 것을 보라. 붉은 포도주 잔이 전해질 때 당신 자신이 그것을 마시는 것을 보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에게 당신이 가지고 있는 질문을 해 보라. 아마 당신은 이것이 당신 일생에 무슨 의미를 가지는 것이냐고 물어보고 싶을 것이다. 이 새로운 언약이 당신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님에게 묻고 싶은 어떤 질문이든지 아니면 말하고 싶은 무엇이든지 말을 하라. 그리고 차분하고 조용히 그분이 어떤 식으로든 응답할 시간을 드려라.

(약 3분에서 5분 정도 시간을 준다. 그리고 전체가 모였던 장소로 다시 모이게 한다.)

묵상 (10분)

기도를 한 후에 참가자들에게 다음의 질문들을 통해서 이 관상기도의 경험을 기록 하도록 한다:

- 당신은 무엇을 경험하였는가?
- 이 기도가 당신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 이 관상 기도가 당신의 성찬에 관한 이해를 어떻게 도와 주었는가?

참가자들을 소그룹으로 나눌 것인지 아니면 전체가 모여서 나눌 것인지 아니면 자신들의 경험을 표현할 수 있는 작품이나 시를 쓸 것인지를 정해야 한다.

테이블 준비하기: 성찬식 준비 (15 분)

성찬의 내용물들은 보통 빵과 포도주 혹은 포도 주스라고 알려져 있다. 당신의 성찬식 경험에 또 다른 무엇이 더해졌었는가? 참가자들에게 소그룹 혹은 전체 모임에서 성찬식의 경험의 일부가 되었던 내용들을 토론하도록 한다.

- 성찬식이 진행되는 동안 테이블이나 혹은 중앙에 어떤 초점이 되는 중요한 것이 있었는가?
- 손을 벌려 받는 것이 성찬식의 일부였는가?
- 마음을 열고 성찬식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꺼이 받아들인 것이 당신의 경험의 일부였는가?
- 당신이 빵과 포도주를 받을 때 사용되는 말들이 성찬식의 중요한 부분이었는가? (전통적으로는 우리가 빵을 받은 후에 “아멘”이라고 말하고, 포도주를 받은 후에도 “아멘”이라고 말을 한다.)
- 빵과 주스와 껍은 어떤가? 곡식과 포도가 어떻게 어디서 자라는 지를 생각해 보라. 껍을 만들기 위한 흙과 다른 원소들은 어디서 왔는가 땅과 공기와 비와 태양을 생각해 보라.

밀을 추수하고 포도를 거두고 방앗간에서 빠고 운반하고 빵을 굽고 도자기를 만들고 도자기를 채운 모든 사람들을 생각해 보라.

- 성찬식에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 세상에 있는 다른 무엇이 사용되었을까?

참가자들에게 소그룹으로 나누라고 한 후에 각 그룹에게 성찬식에서 있었던 주고 받는 부분과 관련된 모든 부분들을 보여줄 수 있는 그림을 그리거나 시를 적어 보라고 초청 한다.

성찬식을 우리 삶과 연결시키는 일 (15 분)

이 식사에서 예수님에게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교재 본문에서 우리들은 이렇게 읽는다. “매번 우리들이 테이블에 올 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드러날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우리들은 성찬식에서 성령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임재가 생생하게 드러나게 하는 지를 경험한다.
- 우리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성장과 치유와 용서와 온전함을 받아들인다.
- 우리는 감사의 행동으로 성찬식에 참여한다. 우리는 서로의 차이를 한쪽으로 제쳐두고 우리가 하나의 빵과 하나의 껍을 나눌 때 그리스도 안에서 근본적인 하나됨을 구체화한다.
- 우리는 예수님의 극진한 대접을 맛보며 그 테이블에 모두 나와서 예수님과 함께 앉고 싶어한다.

- 우리는 사랑과 정의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확인한다.
-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위한 양식을 얻고 다른 이들을 돌보며 불의에 대항하기 위한 힘을 얻는다.
-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경험한다.
- 우리들이 성찬식에 참여할 때는 앞으로 있을 더 큰 잔치를 준비하는 것이다.

참가자들에게 주님의 성찬의 이러한 선물들을 경험했던 시기를 기억해 보라고 한다. 그들에게 자신들의 기억을 적으라고 할지, 그림으로 그리라고 할지, 아니면 소그룹 혹은 전체 그룹에서 나누라고 할지를 정한다.

성찬식과 공동체 안에서의 삶 (20 분)

본문에서 우리들은 다음과 같은 글을 읽었다:

바울은 일년 반 정도를 투자해서 이 초기의 신자들의 공동체를 세웠다. 그는 이 새로운 예수님의 추종자들에게 제국의 식민지 안에서 하나님의 식민지가 되라고 가르쳤다. 그들은 자리와 계급을 예배하며 신분을 추구하고 신분 상승을 추구하는 탐욕의 길들에 대한 하나님의 대안이 되어야 했다.

그러나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바울은 이 새로운 하나님의 통치령이 그 당시에 만연한 질병에 감염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분파로 나뉘어졌고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지혜”로 살지 않고 “세상의 지혜”로 살고 있었다.

이 질병은, 바울이 알게 된 바로는, 심지어 주님의 성찬까지도 전염시켰다. 그 당시에 이 거룩한 의식은 마치 교회에서 하는 친교처럼 정말 제대로 된 식사였다. 지속적인 기근 때문에 어떤 가난한 교회에서는 이 공동의 식사가 허기를 면할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더 잘 먹고 사는 사람들이 가정 교회에 다른 일꾼들이나 농부들이나 노예들보다 더 일찍 도착해서는 그 음식과 음료를 다 먹어 치웠다. 어떤 이들은 심지어 술에 취하기까지 하였다. (고린도전서 11:17-34, 본문 중에서)

낭독: 고린도전서 11:27-30 (20 분)

그의 서신에서 바울은 화가나서, 거만하고 이기적인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약해지고 아프고 심지어는 죽기까지 한 것” (30절)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주님의 식탁은 나눔이 전부라고 엄히 가르쳤다.

바울의 서신에 관해서 토론을 인도하라. 참가자들에게 바울의 심한 말들에 그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를 말해 보라고 초청하라. 당신은 그에게 무어라고 응답하고 싶었는가? 이것은 오늘날의 당신의 공동체 안에서 당신을 위하여 어떤 새로운 통찰력을 제시하고 있는가?

참가자들에게 자신들이 방금 나눈, 성장과 치유와 극진한 환대와 또는 다른 성찬식에서 주어진 위에 언급한 선물들을 받은 때에 관해서 생각해 보라고 초청하라. 또한 고린도 교인들에 대해 한 바울의 말과

우리의 교회의 테이블에 오지 못한 사람들과 우리들의 이웃의 가정들에 있는 사람들도 고려하라는 바울의 명령을 생각해 보라고 한다. 우리들은 언제 우리들의 교회나 우리들의 삶의 다른 영역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같은 적이 있었는가? 어디서 우리들은 분열과 두려움과 탐욕과 배타적인 모습이라는 질병을 당신 삶의 테이블에서 보았는가?

모임을 소그룹으로 나누어서 “테이블에 있지 않은” 사람들과의 성찬식을 계획 하도록 해 보라. 우리 지역 사회 어디에 테이블에 있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가? 공원인가, 길거리인가, 마을회관인가? 어떻게 성찬을 그들에게 가져갈 수 있을까? 그 식사에는 어떤 내용물이 담겨야 할까? 무슨 음식이 좋을까? 한 통의 국일까? 세 가지 반찬에 밥이 좋을까? 여러 가지 음식이 좋을까? 테이블에는 무엇을 놓을까? 의자도 필요할까? 잔디밭에 담요를 놓으면 충분할까? 누가 테이블에 함께 앉을까? 초청된 사람들이 앉을까? 그들과 함께 요리사와 시중드는 이들도 같이 앉을까? 포용과 나눔을 표현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어떤 요소들이 있어야 할까?

각 그룹들에게 자신들이 이 음식을 준비하면서 성찬에 대해서 배운 것들을 나누도록 요청한다.

우리의 세례 언약과 성찬식을 사회 정의 실천과 연결시키는 일 (20 분)

이 목상을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요약해서 들려 준다.:

우리의 세례 언약과 예수님과 교제하는 공동체 안에서 저녁을 먹는 일과 사회 정의를 실천하는 일은 무슨 상관이 있을까? 본문에서 우리들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읽는다:

하나님의 모든 선물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과 나누게 되어 있다. 당신이 성찬식에 참여할 때 다시한 번 스스로 자신에게 사랑과 정의가 하나님의 뜻이며 길이라는 것을 확인하자. 비록 고통스러울지라도 당신의 눈을 열어 세상에서 소수의 사람들에게 특혜를 주고 수많은 사람들을 주변으로 내어모는 세상의 방식에 눈을 떠보라. 또한 자연계가 조직적으로 파괴되고 있는 중인 것을 기억하라. 당신이 세상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감당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에게 물어 보라. (본문 중에서)

참가자들에게 자기들이 거룩한 자로 살고 사회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 이 시점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보여주는 콜라주를 만들거나 시를 쓰거나 한 단락으로 요약 하거나 할 수 있는 개인적인 목상의 시간을 준다.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이 활동을 시작한다:

세례식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가 되었던 경험을 기억하면서 당신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와 함께 하게 된 것이 선물이라는 점과 성찬식에서 공동체가 되었다는 점과 우리의 세상에는 깨어짐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마무리를 준비합시다.”

오클라호마 주의 털사(Tulsa)시에 있는 연합 그리스도의 교회(United Church of Christ)에 속한 “열려 있고 사람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희망교회(Community of Hope Church)에는 성찬 테이블에 언제나 “깨어졌지만 다시 온전해진” 성찬기가 놓여져 있다. 이 성찬기를 버리지 않고 다시 붙여서 자신들도 버림받지 않았다는 것과 성찬식을 통해서 하나가 되고 온전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으로 사용되고 있다.

깨졌지만 다시 온전해진 성찬기 (20-25 분)

“깨졌지만 다시 온전해진 성찬기는 탁자에서 우리들을 초청한다 언제든지 거기 있으면서 우리들을 격려하기도하고 도전하기도 한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우리들은 대화하고 분별하라고 부르심을 받는다 방을 나서면서는 듣기 힘든 예언자적인 목소리를 듣게 된다 우리가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려고 할 때처럼.” 이렇게 엘리자베스 박스 프라이스(Elizabeth Box Price)는 희망 교회(Community of Hope)의 성찬기에 대해서 자신의 저서 “정이 많으신 하나님의 사람들: 환대하는 교회를 만들기”(People of a Compassionate God: Creating Welcoming Congregations)에서 적고 있다.¹

이 활동을 하는데는 두 가지 선택의 여지가 있다. 두 가지 다 침묵하면서 예배 드리는 것과 같은 자세로 경건하게 해야 된다. 배경음악으로 알맞은 음악을 골라서 들려줄 수 있다.

1. 깨졌지만 다시 온전해진 성찬기의 모습을 인쇄한 종이를 사용한다. 모임에서 그 종이 성찬기를 찢어 한 사람이 한 조각씩 가질 수 있을 만큼 여러 조각을 낸다. 그렇게 하면서 다음 질문을 묻는다:

- 우리가 사랑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내지 못할 때 우리들은 우리의 일상 생활 에서나 혹은 다른 이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이 성찬기를 어떤 식으로 깨뜨리고 있습니까?
- 그 성찬기를 다시 온전하게 만드는 일에 책임을 지기 위해서 우리들의 몫을 감당할 때 어떻게 해야 정의가 드러나겠습니까?

참가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조용히 묵상하라고 초청한다.

종이 성찬기의 조각들을 나누어 주면서 각자가 그 성찬기의 찢어진 조각 뒤에 조용히 묵상하는 가운데 한 두 마디를 쓰도록 한다. 그리고 그것을 탁자로 가져온다. 그런 다음에 테이블을 가지고 나서 자신들의 조각을 다른 이들에게 붙이도록 한다.

2. 앞의 활동에 사용된 것과 같은 질문을 묵상하면서 토론하도록 참가자들에게 이야기한다. 그리고는 한 사람 혹은 두 사람을 지명해서 이 활동을 도와달라고 한다. 이 활동이 이 과의 마무리의 일부로 행해지는 것이다.

성찬기를 플라스틱 봉지에 넣고 망치로 조각을 낸 후에 접착제로 다시 붙이는 것이다.

모임에서 만든 깨어졌지만 다시 온전해진 성찬기를 예배실 중앙에 놓는다.

마무리하는 기도 (한 목소리로)

자비가 넘치시는 하나님, 저희들을 불러 주시고 당신의 것으로 삼아 주심을 감사 드립니다. 우리들을 양육하시고 언제나 지켜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성찬 테이블에서 주님이 함께하실 때, 그 어느때 보다도 더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성찬 테이블로 나아가 주님과 함께 하며 온전해 지고 하나됨을 경험하며 모두를 품어 안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것을 기억나게 해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들이 사회 정의를 실천하는 일에 힘을 더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치는 찬양

“우리는 사랑의 띠로” (심민보 작사, 작곡 복음성가)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
모두 함께 예수님 크신 사랑 세상에 널리 전하세 -

속제

다음 과를 위해서 제 2장과 4 장을 읽을 것.

1. - 재넷 포사이드 피쉬번(Janet Forsythe Fishburn) 편저, 정이 많으신 하나님의 사람들: 환대하는 공동체를 만들기(People of a Compassionate God: Creating Welcoming Congregations) (내쉬빌: 아빙돈 프레스, 2003).

제 3 장

부르심에 응답하기 1부: 매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

준비

삶의 훈련(Life Discipline)을 준비하기 위해서 목상 시간에 틀어 놓을 음악을 미리 골라 녹음해 놓는다. 부록에 붙어 있는 삶의 훈련 작성표를 충분히 복사해 놓는다.

예배실 준비

지난 두 과에서 준비했던 물품들을 예배실에 두고 성경책은 누가복음10:38-42을 펼쳐 놓고 연대기적인 시간을 표현하는 상징으로는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의 기도 달력(United Methodist Women's Prayer Calendar)을 둔다. 그리고 이 과에서 작성할 삶의 훈련(Life Discipline) 목록을 놓는다.

서론

처음 두 과는 우리들에게 세례식과 성찬식에 대한 우리들의 이해를 깊이하는 것을 도와 주었고 우리들의 경험을 가슴 깊이 새기도록 해 주었다. 또한 우리들에게 성례전을 실천하는 삶을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영적인 훈련을 시켜 주었다. 이제 남은 두 과는 우리들이 부름받은 자로서의 삶을 실제로 살고 사회 정의를 실천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어떻게 분별하는지를 알 수 있게 도와주게 될 것이다. 교재의 2장과 4장에 근거해서 이 과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지금 이 순간에 우리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경건의 사역”을 위한 영적인 도구들을 제공할 것이다.

[요한] 웨슬리는 규칙적인 사람이었다. 얼마나 규칙적이었는지 그의 반대자들이 그에게 “규칙쟁이(Methodist)”라고 별명을 붙일 정도였다. 그러나 웨슬리는 그 별명을 받아들였고 그의 추종자들을 양육할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접근하는 규칙과 기독교적인 삶의 규칙을 보여 주었다. 그는 이것들을 “자비의 사역”과 “경건의 사역”이라고 불렀다. 이것들은 우리가 신실하게 사회 정의를 실천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믿을만한 훈련들인 것이다. (본문 중에서)

아이들과 다세대 그룹들을 위한 자료들

만약 아이들과 다세대 모임을 위한 자료에 관한 아이디어를 찾고 있다면 다음과 같은 자료들을 콕스베리 (Cokesbury)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

- 부모 자녀 수양회. 7살에서 10살까지의 자녀들과 그 부모들을 위한 영적인 경험. 메리 앤 피글리노(Mary Ann Figlino) 지음. 수양회 제목으로는 성만찬, 좋은 친구들, 대사명, 존경, 빛을 비추라, 함께 하심 등등이 있다.
- 신앙을 새롭게 하기 위한 수양회. 주말에 다세대가 함께 하는 5가지 모델. 낸시 퍼거슨(Nancy Ferguson) 지음. 이 책은 생명 혹은 자연의 요소들을 가지고 모든 연령층에 맞고 또 기독교 신앙 안에서 자라는데 적합한 성경 본문들과 주제들을 중심으로 한 다세대 수양회 내용 다섯 개를 담고 있다. 주제들로는 선한 목자를 따름, 물가로 나오라, 빛을 비추라, 믿음의 씨를 뿌려라, 너의 정체성을 드러내라 등이 있다.

모임에의 초대

인도자: 하나님은 더 좋은 쪽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참가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인도자: 하나님은 더 좋은 쪽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참가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함께하는 영적인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경험을 나누어 봅시다.

인도자: 하나님은 더 좋은 쪽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참가자: 하나님은 우리들을 양육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드리며 성찬을 받읍시다. -

인도자: 하나님은 더 좋은 쪽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참가자: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위해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선포합니다. 우리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넓힙시다.

인도자: 하나님은 더 좋은 쪽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참가자: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의 단비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들의 주의를 산만케 하는 것들을 끊어냅니다.

다함께 :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체험합니다.

여는 기도

은혜와 자비가 넘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들에게 이 배움의 시간을 허락하셔서, 기도와 성경묵상, 성도의 모임과 대화, 금식과 예배와 성찬 등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가 됨을 배웠습니다. 이 모든것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다가가고 실천하여서 주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을 언제나 경험하며 살아가는 기쁨을 맛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곧 성례전이 되어서, 늘 함께하시는 주님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15 분)

본문 제 2장에서 노르백(Norberg)과 맥클레인(McClain)은 성경을 마음에 담는 몇 가지 방법을 제안하였다. 참가자들에게 다음의 질문들을 읽어준 후에 그룹으로 (소그룹이나 전체 모임으로) 어떻게 그런 질문들이 교회가 현재 성경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혹은 과거에 가져 왔던 이해들을 풍부하게 할 수 있는지, 심지어는 잘못된 이해를 교정할 수 있는지를 토론하게 한다.

- 당시 세상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고 본문을 지은 저자의 마음은 어떠 했는가? (전제들, 필요들, 외침들, 기쁨들, 불안 들을 포함해서)
- 이 본문이 원래 의도하고 쓰여진 독자들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 특정 본문을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통치의 빛 아래서 이해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우리의 삶의 경험, 문화적인 전제 등은 본문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토론이 끝난 후에 참가자들에게 이 질문들을 마음에 담고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를 묵상하라고 부탁한다.

성경 묵상: 더 좋은 쪽, 누가복음 10:38 42 (20분)

모인 사람들에게 이제 성경을 통한 기도 시간으로 들어가려고 한다는 점을 말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다듬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당신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원하시는 내용을 받을 수 있도록 마음을 여는 것을 도와 달라고 기도한다.

(1분간 멈춤)

세 번에 걸쳐 큰 소리로 인도자나 다른 사람이 천천히 본문을 읽는 것을 들으면서 “더 좋은 쪽”에 관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라고 참가자들에게 말한다. (누가복음 10:38-42) 다음에 있는 이야기를 사용해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가장 진정한 부분으로 깊이 내려가십시오. 당신이 별거벗고 솔직하고 목이 마른 그 장소 말입니다. 조용히 잠시 쉬십시오. 당신의 마음을 조용히 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쉬는 것 이외에는 아무 것도 생각하지 마십시오”라고 초청한다.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예수님은 어떤 마을에 들어갔다. 거기서 마르다라고 불리는 여인이 그를 자기 집에 맞아 들었다. 그녀는 마리아라고 하는 여동생이 있었다. 그녀는 주님의 발 아래 앉아 그가 말하는 것을 듣고 있었다. 그러나 마르다는 자기의 많은 할 일 때문에 마음을 빼앗겼다. 그래서 그녀는 그에게 와서 간청하였다. “주님, 당신은 제 동생이 할 일을 저에게 다 맡겨 둔 것을 모르체 하실 것입니까? 그녀에게 와서 저를 도우라고 하세요.” 그러나 주님은 그녀에게 대답하셨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마음을 쓴다마는 정작 필요한 것은 한가지 뿐이란다. 마리아는 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이성호 옮김)

(2분 동안 멈춤)

생각과 이미지가 당신에게 떠오르도록 하십시오. 떠오르는 생각이나 이미지의 내용을 주목해 보세요. 그것들은 고백입니까? 찬양입니까? 질문입니까?

(1분간 멈춤)

어떤 단어나 이미지도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대신 평안과 만족감, 혹은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의 초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잠잠하라는 단순한 초청일 수도 있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당신을 사랑하게 하라는 초청일 수도 있습니다

(3분간 멈춤)

이제 어떤 느낌이 생기는 것을 막지 마십시오. 당신이 느끼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당신의 느낌들이 의문입니까? 두려움입니까? 분노입니까? 슬픔입니까? 공허함입니까? 사랑입니까? 평안입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것입니까? 당신은 당신의 느낌에 어떤 이름을 붙일 것입니까?

(3분간 멈춤)

그 느낌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것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들의 느낌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단지 당신이 느끼는 것을 주목하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무엇을 계시하시는지 보십시오.

(3분간 멈춤)

그 다음에 무엇이 벌어지는지 주목하십시오. 어떤 기억이 떠오릅니까? 어떤 사람의 모습이 마음에 생각납니까? 무슨 일을 해야 되겠다는 전화를 해야 되겠다든지, 이메일을 보내야 되겠다든지, 누군가에게 무슨 말을 하거나 다른 행동을 취해야 되겠다든지 하는 욕구가 생깁니까?

(3분간 멈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엇인가를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게 하시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당신이 해야 될 무슨 중요한 일이 있는지 의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만약에 있다면 하나님과 다시 한 번 묻고 확인을 받으십시오.

묵상 (15 분)

참가자들이 다음의 질문들에 대해 묵상할 시간을 준다:

- 내 기도가 하나님으로 가득했는가 아니면 나 자신으로 가득했는가?
- 나는 내 기도가 특정한 방법으로 응답되기를 기대하거나 고집을 피웠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시는 새로운 일에 마음을 열고 있었는가?
- 무엇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지 보여 달라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물어보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자 하는 당신의 열망을 존중할 것을 신뢰하라.

(3분간 멈춤)

참가자들에게 이 기도 시간에 가졌던 감정이나 생각이나 질문이나 답변이나 통찰들을 드러내는 묵상 일지를 쓰거나 작품을 만들도록 초청한다. 또한 참가자들이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감사와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와 변화하고 치유하고 성장하기를 원하는 영역을 고려할 것을 촉구한다.

참가자들에게 때로는 기도 가운데 불편하거나 혼돈이 올 수도 있음을 알게 한다. 우리들은 정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무엇을 구해야 할지 모를 수도 있다. 그렇다면 단순히 “저를 도와주세요!”라고 묵상 일지에 적거나 그것을 표현하는 작품을 만들어도 좋다.

기도 과정에 대한 그룹 묵상 (10 분)

소그룹이나 전체 모임에서 참가자들에게 이 기도 과정을 통해 경험한 것들을 나누도록 초청한다.

삶의 훈련 (30 40 분)

저자들이 학습 과정에서 은혜의 수단들로 통하는 창문을 여는 경건의 사역들을 살펴 보았음을 설명한다: 성찬식, 예배, 성경묵상, 기도, 성도의 모임과 대화, 그리고 금식. 이러한 사역들은 우리들이 구별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도록 도와준다.

이 활동에서는 각각의 경건의 사역들을 고려하고 어떻게 그것들을 지속적으로 할 것인지 생각하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이것을 “삶의 훈련”이라고 부른다. 삶의 훈련이란 사람들이 매일, 매주, 매월, 매년 지속하기를 원하는 경건의 사역들을 시작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어떤 이들은 매일 성경을 읽거나 영적인 글들을 읽기로 한다든지 기도나 묵상을 한다든지 묵상 일지를 쓴다든지 매주 예배에 참석하고 주일을 지킨다든지 성찬을 한다든지, 매주 혹은 매월 기독교인의 모임을 가진다든지 매월 금식을 한다든지, 매년 영적인 수련회를 가진다. 삶의 훈련을 위한 당신의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주기적으로 (매년) 혹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는 때마다 고쳐간다.

참가자들에게 이제 시간을 가지고 어떤 경건의 사역을 당신이 실천하고 싶은지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고 본인의 삶의 훈련을 형성하기 시작해야 한다는 점을 말한다. 삶의 훈련은 자비의 사역으로 이끌고 그것을 계속하도록 도울 것이라는 점과 삶의 훈련이 무엇이 되어 할지 결정할 때 다음의 질문들과 제안들을 고려해 보라고 초청한다.

참가자들이 자신들의 삶의 훈련에 대해서 묵상할 때 조용히 배경 음악으로 들려줄 음악을 미리 준비하였다가 들려주는 것을 생각해 보라. 참가자들에게 다음의 질문들을 가지고 써름해 보라고 초청하면서 먼저 “성찬식과 예배”에서 시작해서 “자비의 사역” 까지 삶의 훈련이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지를 생각해 보라고 한다:

- 성찬식과 예배: 얼마나 자주 당신은 이것들을 실천하기를 원하며 어떻게 이것들을 경험할 것인가? 매일? 매 주? 당신은 새로운 예배나 성찬식을 찾아 나설 것을 계획하고 있는가?
- 기도: 당신은 얼마나 자주 기도하는 일에 시간을 쓰기를 원하는가? 매일 얼마나 오래 기도하기를 원하는가? 어떤 기도 습관을 탐구해 보기를 원하는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는 묵상기도 (렉시오 디비나 Lectio divina)나 관상기도 혹은 다른 종류의 영적인 독서나 묵상을 시도할 것인가?
- 성도들의 모임과 대화: 당신은 영적인 친구 혹은 영적 친구들이 모임을 가지는 일에 헌신하기를 원하는가? 당신은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 모임이나 혹은 다른 교회 모임을 통해서 영적인 나눔에 참여할 계획인가? 얼마나 자주 당신은 만날 것인가?
- 금식: 언제 금식을 계획하고 있는가? 그것은 음식을 금하는 것인가 아니면 당신과 하나님의 관계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열린 마음을 강화하기 위해 다른 어떤 것을 금하는 것인가?

자비의 사역: 자비의 사역은 경건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과 함께 더욱 더 연결된 결과이다. 그것들도 역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더욱 깊게 하는 영적 훈련들이다. 영적 훈련으로서 자비의 사역들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로 사용될 능력을 키워주고 우리가 공동체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랑받음직한 상태에 놓이게 되는 능력을 키워준다. 다음 과에서 우리들은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계속해서 분별하는지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당신의 마음 가운데

데 계속해서 부담이 되는 자비의 사역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라. 당신이 자비의 사역을 생각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브라이언 맥라렌(Brian McLaren)의 책 다시 우리의 길을 찾자(Finding Our Way Again)에 나오는 목록들을 참조하라.

- 우리에게 잘못된 이들을 용서하는 일.
- 이방인들 또는 “다른 이들”에게 환대를 베푸는 일
- 아픈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
- 판단하지 않고 자비와 긍휼을 보이는 일.
- 악에 대항하되 선으로써 그것을 극복하기를 구하는 일
- 섬김
- 남의 말을 들어줌
- [힘없는 변두리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일.
- “거룩한 입맞춤”을 하는 일 [소외된 이들과 함께 먹는 일].
- 사랑으로 진실을 말하는 일
- 원수들을 포함하여 사람들의 이웃이 되어주기
- 부자들에게 잘하기 보다는 가난한 이들을 더 사랑하기.
- 정의를 위해서 말하고 일하기
- 말과 행동으로 복음을 선포하기
- 가난한 이들을 구제하기
- 가난한 이들과 잊혀진 이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기
- 곤궁에 처한 이들을 돕기 위해서 내가 사는 동네와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 가난한 동네로 걸어 들어가기
- 다른 사람들과 같은 감정을 가지기!

자신의 삶의 훈련을 계획하는 일 (30 분)

이제 참가자들에게 자신의 삶의 훈련을 작성하도록 초청한다. 경건의 훈련 중에서 자신이 매일 혹은 매주 혹은 매월 혹은 매년 하기로 결정한 것을 고르도록 권한다. 자신의 삶 속에서 새로운 헌신을 위해 시간을 계획할 때는 현실적이어야 한다는 점을 제안한다. 정기적으로 가령 자신의 생일이라든지 아니면 새해 첫 날이라든지 하는 때에 자신의 삶의 훈련을 필요에 맞추어 새로 짜야 한다는 점을 말한다.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살펴 보라고 권하면서 자기들에게 끌리는 것들, “자기들 이름이 붙어 있는 것들”에 주목할 것을 제안한다. 왜 그런 것들에 끌리는지를 생각해 보라고 초청한다: 그것이 성장을 도울 것 같아서입니까? 아니면 균형을 잡아줄 것 같아서 입니까?

때로는 우리들이 우리 성격에 잘 맞는 영적인 방법에 더 끌리고 영적인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에 대해서는 저항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한다. 참가자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면

서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께 어떤 영적 습관이 성숙과 균형을 가져다 줄 지 인도해 주실 것을 구하도록 한다. 왜 어떤 방법에는 저항감이 드는지, 어떤 경건의 사역들을 매일, 매주, 매월, 그리고 매 년 할 것인지를 정한다.

부록에 붙어 있는 삶의 훈련 계획표를 복사해서 나누어 주거나 참가자용 교재에 있는 실제 계획표나 자신의 묵상 일기장을 사용할 것을 권한다.

매일 할 것들: 당신이 기도하거나 성경을 읽거나 묵상일지를 쓸 시간을 정하라; 당신은 기도 시간에 어디로 갈 것인가 (예를 들어서 방 한 쪽 구석이나 가장 좋아하는 의자나 밖의 어떤 장소); 어떤 자료를 읽을 것인가; 어떤 기도 방법을 택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묵상 기도 lectio divina, 관상기도, 침묵 기도, 중보기도, 본문을 되새기는 기도); 당신의 기도 시간에 있었던 일들을 밖으로 표현하기 위해 일지를 쓸 것인지 작품을 만들 것인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표현할 것인지 정해 보라.

매 주 할 일들: 매 주 할 일들에는 예배와 성찬, 성도들의 모임과 금식, 안식일 준수 (자연에서 하나님과 시간을 보낸다든지 가족이나 친구들과 시간을 보낸다든지 독서나 산책으로 시간을 보내는 일을 말함)이 있을 수 있다.

매월 할 일들: 매 월 할 수 있는 일들로는 성찬식, 금식, 영적인 인도자와의 만남, 성도들의 모임, 그리고 하나님과의 하루를 보내는 일들이 가능하다.

매년 할 일들: 만약에 연례 영적인 수양회를 계획한다면 3일에서 8일 정도를 하나님과 둘이서만 지내는 시간을 계획하되 수련회 강사나 영적인 지도자에 의해 인도되는 시간을 가지라. 만약 당신의 지역이나 지방이나 연회의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가 연례 혹은 이년에 한 번 가지는 수양회를 가진다면 거기에 참석할 계획을 세우라. 연합감리 교회 영성 기관인 다락방(The Upper Room)도 매년 수양회를 제공하고 있고 그중에는 영성 아카데미(Academy for Spiritual Formation)와 소울 잔치(SOULfeast, www.upperroom.org.) 가 있다. 당신 지역의 수양회 장소나 당신이 방문하고 싶은 지역 수양관을 알아 보라.

헌신: 삶의 스타일을 바꾸는 일은 쉽지도 않고 편하지도 않다. 당신의 삶의 훈련을 어떻게 당신의 삶에 구체화 시킬 수 있을 것인지 생각해 보라. 당신의 매일 기도 시간이나 매주 헌신된 일들을 계획표에 집어 넣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인가? 내년도의 연례 수양회를 미리 계획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인가? 그런 헌신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잘 할 수 있을 지 구체적으로 적어 보라.

마무리

마무리를 위해서는 참가자들에게 서서 원을 만들고, 각자 자신이 작성한 삶의 훈련을 들고있게 한다.

자신의 삶의 훈련을 하나님께 드리기 (한 목소리로)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들에게 은혜의 수단들을 배우게 하시고, 경건의 사역들을 보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헌신하려는 경건의 사역들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이러한 영적 훈련들, 보다 더 좋은 편에 헌신하려고 합니다. (침묵 가운데 자신의 삶의 훈련을 하나님 앞에 들어 올린다.) -

우리들이 당신과 함께 하는 매일, 매주, 매월, 그리고 매년의 시간을 헌신 할 때 우리들의 마음가짐을 축복하시고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며, 당신의 사랑의 증표로 삶을 살고 당신의 사랑의 가족 공동체 안에서 사회 정의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으로 마감한다.

“나의 생명 드리니” (한국 찬송가) -

유튜브에 나오는 이 찬송가를 쓰려면 www.youtube.com/watch?v=V0Byp7aK2DA 를 보라. 이 특정 해석은 크리스 톰린(Chris Tomlin)이 부른 것이다. 만약 이 비디오를 쓰기로 정했다면 공공 상연을 위한 저작권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저작권 허가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면 개인들에게 집에서 이 비디오를 보고 묵상하라고 제안하면 된다. -

속제

제 4과를 위해 제 3장과 제 5 장을 읽을 것.

1. 브라이언 맥라렌(Brian McLaren), 다시 우리의 길을 찾자: 옛날 선조들의 훈련으로 돌아가기(Finding our Way Again: The Return of the Ancient Practices) (내쉬빌: 토마스 넬슨, 2008), 119쪽

제 4 과

부르심에 응답하기 2부: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의 세상을 돌보는 일

준비

이 과의 마지막에 있는 애찬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모든 참가자들이 먹을 수 있는 분량의 간단한 음식과 음료를 준비한다. 음식은 성찬식과 구분하기 위해서 포도주와 빵이 아닌 다른 것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서, 간단한 과자나 사과 주스같은 것이면 된다. 아니면 예수님의 문화에 있는 고유한 대추 비슷한 데이츠 (dates)같은 마른 과일을 준비해도 좋다. 아니면 그것을 나누는 사람들에게 의미있거나 고유한 것 (한국 음식)도 고려할 수 있다. 참가자들 지역에서 자라는 것이나 생명을 주는 것 물이나 감자일 수도 있다. 냅킨과 작은 컵도 접시와 함께 준비한다. 찬양집이나 찬송가도 나누어준다. 할 수 있으면 음악을 인도할 수 있는 피아노 반주자나 기타 치는 분을 모셔와도 좋다.

모인 사람들에게 요나서를 어떻게 읽게 할 것인지를 정한다. 그것은 짧은 책이면서 아주 도전적인 책이다. 이것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읽을 수 있다. 먼저 혼자 큰 소리로 읽는다. 참가자들에게 한 사람이 한 장씩 읽도록 부탁할 수 있다. 아니면 참가자들이 한 단락씩 나누어 읽을 수도 있다. 아니면 참가자들을 네 그룹으로 나누어서 그들에게 한 장씩 조용히 읽으라고 지정해 주고 나중에 그 그룹이 각 장의 내용을 단막극으로 표현하라고 해도 좋다. 만약 단막극을 생각한다면 3과의 숙제에 이것을 추가로 미리 넣어 놓는 것이 좋다

기도모임을 계획하는 것이 활동으로 들어가 있다면 그룹에서 함께 생각할 질문의 목록을 미리 만들어서 나누어 주거나 칠판에 써 놓을 수 있다.

조사를 쓰는 동안 조용히 배경 음악을 틀기 위해서 미리 어느 연주곡을 준비할 것인 지를 정한다.

예배 장소

음식 접시와 주스가 담긴 그릇, 접시들과 냅킨들과 컵들은 예배 장소에 둔다. 음식과 주스를 냅킨이나 천으로 덮어 둔다.

제 4과 서론

기독교적인 분별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정말 소통하시기를 원하시며 우리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여기시고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며 사회 정의를 실천하도록 힘을 주실 것이라는 전제에 근거하고 있다. 분별을 통하여 우리들은 비록 보

잘 것 없어 보이는 우리들의 삶이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든 일을 새롭게 하시는지 느끼기 시작할 수 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실 때 하나님의 위대하신 흔적을 만지기 시작한다... (본문 중에서)

우리의 삶의 훈련 가운데 경건의 사역을 실천하기로 결심하는 것은 우리에게 웨슬리가 가르쳤던 은혜의 수단들을 삶에 적용하는데 도움이 된다.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고자할 때 우리들은 동시에 유일한 거룩함은 사회적인 거룩함이라고 하는 웨슬리의 가르침도 또한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회정의의 실천을 위해 어떻게 우리를 부르시는지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더 깊게 하기 위해 일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성경에 나오는 소명 이야기들과 다른 시대의 소명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활동에 대해서 묵상하고 우리에게 사회 정의를 실천하라는 부르심을 분별하는 일을 돕는 영적인 도구들을 배우게 될 것이다.

모임에의 초대

인도자: 예수님은 당신이 걸으신 길을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구별된 삶을 살고 사회 정의를 실천하라고 부르십니다.

참가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지 제가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회 정의의 실천”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제가 어떻게 압니까? 제가 사회 정의를 실천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인도자: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시며 예수님은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참가자: 저는 보고 배우고 따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누구를 볼까요?
제가 누구에게 배울까요? 제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까요? -

인도자: 우리들 서로의 말입니다.

참가자: 저는 보고 배우고 듣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분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함께: 우리 함께 배웁시다.

찬양

“주, 호수가에 오셔서” (찬송과 예배90장)

기도 (한목소리로)

오 놀라운 소망의 하나님, 당신은 우리들이 당신의 가족 공동체를 완성시키는 일을 도우 라고 우리들을 부르셨습니다. 우리들은 당신의 방식에 언제나 놀라며 때로 당황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점점 더 당신을 도울 마음이 생깁니다. 이제 우리들은 분별하는 법을 배워 당신과 매일 함께 걸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은 우리 각자에게 주신 구체적인 소명에 응답하여 당신이 창조하신 세상을 위해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은 당신의 사랑과 정의를 모두 나누기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연구 요나서 (큰 소리로 읽는 경우는 10분, 단막극을 하는 경우는 20분)

참가자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제 3장에서 맥클레인(McClain)과 노르벽(Norberg)은 우리들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상기시키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불러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의 흐름에 동참시키신다. 그리고 우리의 세례식은 바로 그 부르심의 표시이다. 그러나 정확하게 하나님은 우리들을 어떻게 부르시는가?” 우리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아볼 수 있는가? 그 한 가지 방법은 이야기들을 통한 방법이다. 이 과에서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이야기들과 역사상 혹은 현대의 사람들의 삶에서 있었던 수많은 이야기들을 나눌 것이다. 우리 모두가 어릴 때 들었던 성경의 이야기를 새롭게 한 번 살펴 보자 요나의 이야기이다.

요나의 이야기를 개인적으로 읽거나 그룹에서 읽는 것을 들어 보라.

목상 (20 분)

참가자들에게 개인적으로 혹은 소그룹에서 다음의 질문들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거나 나누도록 초청한다:

요나의 이야기

- 이 이야기에서 당신이 가장 흥미있다고 느낀 것은 무엇인가?
- 당신은 요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 당신은 왜 요나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를 원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가?
- 하나님은 요나를 부르시는 것을 포기하셨는가?
- 하나님은 요나와 어떻게 관계를 지속하셨는가?
- 하나님은 요나와 어떻게 같이 일하셨는가?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신 방식에서 어떤 유형을 찾을 수 있는가?
- 요나는 하나님이 자신과 무슨 일을 하시는 줄을 어떻게 알 수 있었는가?
-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며 하나님의 개입인 것을 알았는가?

요나의 이야기를 우리의 이야기에 연결하기.

- 당신은 스스로를 요나와 동일시하는가? 어떤 의미에서 그런가?
-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다고 생각하는 일을 왜 하기 싫어한다고 생각하는가?
-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하라고 시키신다고 느끼면서도 그 일에 침묵하거나 응답하는 것을 거절한 경험이 있는가?

소명 이야기들을 살펴보기 (20 분)

참가자들에게 본문 3장에 나온 인용문을 다시 상기시킨다: “하나님이 부르신 성경의 이야기들은 아마도 가장 익숙한 이야기들일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생각지도 않은 시간과 장소에서 우리들의 이름을 부르시는 일을 그치지 않으신다.” 참가자들에게 소명 이야기들을 살펴 보도록 초청한다.

전체 모임에서는 맥클레인(McClain)과 노벽(Norberg)이 표현한대로, “그녀 자신의 극도의 연약함과 고통의 용광로 속에서” 매기 리히티(Maggie Liechty)가 어떻게 소명을 받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큰 소리로 읽어준다. 그리고는 둘이나 셋씩 짝을 지어서 자신들은 어떻게 “자기자신의 극도의 연약함과 고통의 용광로 속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을 수 있었는지를 토론하도록 초청한다. 참가자들에게 제 4장에 있는 다른 이야기들 가운데 자신이 연결할 수 있는 이야기를 생각하든지 아니면 자기가 아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들을 생각해 보라고 해도 좋다.

일상에서 분별하기 위한 도구: 일일 성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매일 아니 때 시간 마음을 여는 것은 하나님과의 살아 있는 지속적인 대화로 이끌 수 있다. 분별은 우리 삶을 구별된 삶을 살으라는 하나님의 초청에 따라 우리 삶을 규정하도록 우리를 돕는다” (본문 중).

제 3장에서 분별에 대한 도움이 되는 논의를 통해서 맥클레인(McClain)과 노벽(Norberg)은 우리의 평생에 걸친 분별의 과정에 우리가 참고해야 될 몇 가지 질문들을 제시하고 있다.

- 치유받고 싶은 나의 마음이 명료함과 실효성을 분별하는데 방해가 된 것은 아닌가? 많은 사회적인 운동들은 참여자들이 그것을 개인적인 목적이나 이름을 내기 위해 이용함으로써 잘못되어 왔다.
- 내가 분별한 내용이 하나님이나 성경 말씀과 같은 선상에 있는가? 그것이 그리스도의 영에 일치하는가? 웨슬리의 용어를 빌자면 성경의 “전체 맥락과 흐름”에 일치하는가?
- 내가 분별한 내용이 상식에 맞는가? 그렇지 않다면 다른 자원들을 통해 조심스럽게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 내 소명의식이 최선의 인간적인 지혜와 일치하는가? 내가 나 자신에게 적합한 정보를 주는 정성을 다 했는가?
- 내 소명이 오랜 시간에 걸친 교회의 입장과 잘 맞는가? 웨슬리의 전통과도 맞는가?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에도 맞는가? (누가복음 Luke 4:18-19에 나오는 것 같은) 연합감리교회의 사회 신

조(The Social Principles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의 내용에 꼭 따르지 않더라도 그 정신에 부합하는가? (동시에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말씀하시며 교회를 새로운 방식으로 인도하실 수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 내 소명이 소외되고 가난하고 피해를 당한 이들의 특별한 관심과 일치하는가?
- 내가 가장 신뢰하는 이들이 내 소명이 바람직한 것이며 그들이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다고 생각하는 방식과 일치하는가?
- 내 소명 의식이 시간이 지나면서 더 강렬해 지는가? 아니면 그것이 더 열정적이 되든지 식어 지는가? 그것이 여러 방향에서 확인을 받고 있는가?
- 놀라움의 요소가 있는가? 비록 놀라움이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진정한 부르심을 가 르키는 것이 될 수 있다.
- 내 소명 의식이 나를 더 멋있게 보이거나 내 자신의 이익을 늘리는 것이 될 가능성이 있는가? 그렇다면 더 조심할 필요가 있다.
- 내가 진심으로 분별하는데 장애물을 쌓아 놓고 있는가? 예를 들면, 하나님께 묻기도 전에 내가 이미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확신하고 있는가? 내 속에서 하나님의 주목을 받기 원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가? 부끄럽다는 생각이 나를 주저하게 하는가? 내가 완전한 소명이나 분별력이 생기기 를 기다리며 꼼짝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가?
- 내가 어떤 소명을 감당하기에 신체적으로 적합한가? 내가 이 소명을 따르면서 동시에 내 건강을 돌 볼 수 있는가?
-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받아들이는 위험에 처한 것은 아닌가? 내가 너무 자존심이 강해 서 내 능력에는 한계가 없고 모든 것이 내게 달렸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나의 가족들이나 내 가 잘 아는 사람들은 이 면에서 어떻게 분별 과정을 도와줄 수 있는가?
- 내 소명의식이 진정한 도전을 의미하는가? 그것이 나를 흥분되게 하고 내가 그것을 따를 때 마음 의 평안을 주는가? 아니면 내가 그것을 죄의식이나 아니면, 내적 혹은 외적 압박 때문에 하는가?
- 내 소명 의식이 말씀과 성례전 안에 있는 은혜의 수단을 실천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어서 내가 끊임 없이 그리스도의 실재하심으로부터 영양을 공급 받고 있는가?
- 내 소명의식이 나로 하여금 필요한 일들을 더 잘 하도록 준비된 상태가 되기를 원하게 하는가?

참가자들에게 이러한 질문들을 살펴 보도록 초청한다. 그들에게 현재 가장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질문이 무엇인지 나누도록 한다. 그리고 참가자들에게 일일 성찰은 우리를 이 과정에서 돕는 기독교 전통에 있는 또 다른 영적인 도구임을 설명한다. 우리가 그것을 매일 실천하는 동안 (이것은 하루에 십분 밖에는 걸리지 않음), 우리들은 우리 삶에서 하나의 유형을 발견할 수 있다는 점과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소명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 지를 매일 점검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소명을 조율하시는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부르시시지를 보는 것임을 설명한다.

참가자들에게 일일 성찰을 어떻게 하는지를 설명해 준다.

하루의 마지막에 약 십 분을 따로 떼어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답을 보여 주시도록 하나님께 여쭙는다. (참가자들에게 이 두 가지 질문은 필요하면 다르게 바꾸도록 한다):

1. 오늘 언제 나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에 사랑과 정의를 가장 많이 공헌할 수 있었는가? 그 답을 적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2. 오늘 언제 나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에 사랑과 정의를 가장 적게 공헌하였는가? 그 답을 적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

비록 이것이 단순히 우리들의 삶을 들여다 보는 것이기는 해도 이 성찰을 오랫동안 매일 계속 할 때에, 하나의 패턴이 드러나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된다. 매일 성찰은 이 두 개의 간단한 질문에 대한 우리들의 대답을 의식하게 도와준다.¹

일일 성찰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그룹에 주기 위해서 그들을 잠시 조용한 침묵으로 초청하고, 자신을 하나님의 존전에 두고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이 마음에 떠오르도록 한다. 그리고는 참가자들에게 스스로 질문하도록 초청한다: “오늘 언제 나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에 사랑과 정의를 가장 많이 공헌할 수 있었는가?” 몇 분 동안 침묵하라. 그들이 오늘 사랑과 정의에 공헌할 수 있었던 방식에 대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라고 제안하라. 그런 다음에는 다음과 같이 질문하라: “오늘 언제 나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에 사랑과 정의를 가장 적게 공헌하였는가?” 몇 분간 침묵하라. 그리고는 오늘 그들이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에 사랑과 정의를 더욱 많이 공헌할 수 있었을 것을 생각 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라고 제안하라.

참가자들에게 자기들의 대답을 들씩 짝지어서 서로 나누도록 한다. (이것은 의무라기 보다는 선택 사항임) 그렇지 않으면 자신들의 대답을 묵상 일지에 적도록 한다.

전체 그룹으로 모여서 일일 성찰이 자신들의 삶 속에서 자기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 지를 토론하도록 돕는다.

사랑과 정의에로의 부르심 (20 분)

이 시간은 우리가 세례 언약을 기억하고 성찬식에서의 하나님의 지속적인 사랑을 되새기는 시간이다. 참가자들에게 자신들의 세례 언약과제 1과에서 자기들이 하나님께 쓴 편지를 기억하라고 초청한다. 참가자들에게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를 성찬식에서 경험했음을 기억하라고 초청한다. 참가자들에게 우리들은 영적인 훈련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구별된 삶을 살기로 헌신했고 그것이 우리에게 행동을 하도록 인도하게 된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참가자들에게 우리들은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기독교 공동체로서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는 일에 부름을 받았다고 말하라. 참가자들에게 제 3장에서 연합감리교회들과 개인들이 제도적인 변화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일들의 예를 찾아 보라고 초청한다. 이 토론은 참가자들에게 자신들이 어떻게 개인 혹은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 같은 기관들을 통해서 행동의 일부를 감당하고 있는지를 나누도록 인도할 수도 있다.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원들은 지역에서나 국내적으로 혹은 전 세계적으로 변화를 이루어 내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기도에 동참하고 있다. 예를 들면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원들은 이 나라에 불법으로 들어왔지만 지금은 대학에 다니고 있는 자녀들, 즉 드림법안 수혜 후보자들(DREAMers)을 위한 철야 기도회를 하고 있다. 드림 법(The DREAM Act)은 그들에게 시민이 되는 길을 열어줄 것이다. 그들의 신앙표현의 일부로 일부의 모임에 속한 사람들은 이 드림 법안 수혜 후보자들을 위해 매일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다.²

누군가에게 에베소서 6:11-12을 읽으라고 초청한다. 에베소서의 저자는 부정한 제도에 대항해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적고 있다: “우리들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11-12, 표준 새번역)”

기도는 공동체의 행동을 위한 한 가지 형태임을 참가자들에게 강조한다. 공적인 장소에서 그것은 변화를 위한 증언이 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은 독일 라이프찌히(Leipzig)에서 몇 년에 걸쳐서 매주 월요일 저녁에 있었던 평화 기도회가 베를린 장벽의 붕괴를 가져왔다고 믿고 있다.

참가자들에게 몇 년 동안에 걸친 내전 이후에 자기 나라에 평화를 가져온 라이베리아(Liberia)의 여성들 이야기를 해준다. 38살의 루터교의 교인이고, 여섯 자녀의 어머니인 라이베리아 평화 운동가인 레이마 그보위(Leymah Gbowee)는 기독교인들과 무슬림 여성들이 어떻게 편견을 깨뜨리고 자기 나라의 평화를 위해 일하는 공동의 목표를 발견 할 수 있었는 지를 보여준다.

몇 년 동안에 걸친 내전 이후에 그녀는 라이베리아(Liberia)에 있는 믿음이 있는 여자들을 모아서 평화를 세우는 일을 하였다. 즉, 그들은 평화를 위한 기도회를 공개적으로 하기 시작하였다. 이 여자들의 운동이 결국에는 찰스 테일러(Charles Taylor) 대통령을 몰아내고 엘렌 존슨 시르리프(Ellen Johnson Sirleaf)의 대통령 당선을 가능하게 했다. 그보위(Gbowee)는 그녀와 “모녀관계”에 있다고 말한다.

엘렌 존슨 시르리프(Ellen Johnson Sirleaf) 대통령은 연합감리교회 교인이며 현대 아프리카의 국가 수반으로 처음으로 선출된 여성이다. 라이베리아의 평화를 위한 그보위(Gbowee)의 노력은 그녀의 자서전인 우리의 모인 힘은 강력하리라: 어떻게 자매의 정과 기도와 성별이 전쟁 중인 나라를 바꾸는가 (Mighty Be Our Powers: How Sisterhood, Prayer, and Sex Changes a Nation at War)와 기록 영화 “마귀를 지옥으로 돌려 보내기를 기도하라” (“Pray the Devil Back to Hell”)에 잘 나와 있다.³

공동체 활동의 일환으로 기도회를 계획하는 일 (20 분)

소그룹으로 나누어 철야 기도회를 계획하도록 한다. 철야 기도회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경험을 나누도록 한다. 그것을 어떻게 조직하고 그 철야 기도회를 하는 동안 어떤 은혜를 체험했으며 그 결과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룹들이 철야 기도회를 계획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는 세 가지 질문을 토론하도록 한다 (그 질문들은 칠판에 미리 써 놓거나, 아니면 별지에 적어서 나누어 준다):

- 하나님은 당신에게 어떤 불의함을 놓고 기도하라고 부르신다고 느낍니까?
- 당신은 왜 기도회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 당신은 변화를 이루기 위해 누구와 손을 잡을 수 있습니까?
- 기도하는 이들이 기도의 연결 조직을 통해 개인적으로 기도할 것입니까? 아니면 기도하는 이들이 함께 모여 한 자리에서 기도할 것입니까?
- 만약 개인적으로 한다면 기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의사소통이 이루어 질 것입니까? (전화 연락망, 페이스북 페이지, 이메일?)
- 만약 철야기도회가 모임으로 이루어진다면, 참가자들은 얼마나 자주 기도하러 모일 것입니까? 어

디서 그들이 기도할 것입니까? 사적인 장소입니까 공적인 장소입니까? 장소에 따른 장단점을 토론해 보세요. 기도회에 참석하는 이들 이외에 다른 이들이 아는 것이 중요합니까? 대답이 예든 아니든 왜 그렇게 생각 합니까?

- 이 문제를 사람들이 의식하게 만드는 가장 좋은 공공 장소는 어디입니까? 만약 철야 기도회가 공개적인 장소에서 모인다면 기도회 하는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질 것입니까? 기도회가 사적인 장소에서 모이는 것과 다른가요?
- 철야 기도회 순서는 어떻게 짤 것입니까? 기도회 시간은 어떻게 구성될 것입니까? 아니 순서가 있어야 합니까? 금식이나 침묵기도 소리내서 하는 기도 (즉석 기도 혹은 기도문 낭독), 노래, 행진, 촛불, 싸인, 배너, 그림 등을 동원할 것입니까?
-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회를 할 것입니까? 변화가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 어떤 목표들과 단계들이 있어야 할 지 상상해 보십시오.

전체 모임에서는 이런 활동을 통해 드러난 사랑과 정의를 위한 공동체 행동과 기도에 관해서 깨달은 점과 발견한 것들을 나눈다.

자기의 조사를 직접 쓰기 (30 분)

인도자로서 참가자들에게 이 활동이 마음을 불편하게 하려는 것이 아님을 확신 시켜 준다. 이것은 누구를 놀라게 하거나 두렵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의 깊은 곳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사랑과 정의의 활동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는 도구인 것이다.

참가자들에게 이제 자신의 길고 풍성했던 삶의 끝에서 당신의 조사를 쓸 때가 되었다고 상상해 보라고 초청한다. 이 조사는 사람들이 신문에서 읽는 것과는 조금 다른 것이 될 것이다. 이것은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정의를 행하고 사랑이 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하였는가 하는 것을 되돌아 보는 것이다. 이것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을 도왔던 방법들과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들과 자신이 부정을 고발하고 제도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공동체에서 취했던 행동들을 나열해야 한다.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더 완성시키기 위해 도왔던 방법들을 담고 있어야 한다.

참가자들에게 자신이 이 조사를 쓰는 동안 자신의 가슴이 자신을 인도하도록 제안하라. 참가자들은 어떤 제한도 없이 자기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이 조사를 써야 한다. 참가자들에게 “이들 가운데 가장 작은 이들”을 위한, 혹은 당신이 변화되기를 가장 원하는 불의에 대한 긴급성과 열정을 가지고 써보라고 격려하라. 이 조사를 사람들이 지금부터 이루고 싶은 삶의 기록이 되게 하는 것이다.

이 활동을 끝내도록 시간을 충분히 준다. 배경 음악을 조용히 틀어주는 것도 좋을 것이다. 그리고는 참가자들에게 자신들의 조사를 자신들의 현재의 삶과 비교하도록 초청한다. 자신들의 삶 속에서 사회 정의를 위한 목표들을 이루기 위해 다음 단계로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가? 그 다음 단계, 혹은 첫 단계는 무엇인가?

다른 사람과 짝을 짓든지 아니면 소그룹으로 나누어 자신들의 조사를 나누게 한다. 그리고 아직 사람들 마음 속에 그것이 분명한 때 자신들이 삶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조사에 쓴 내용들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언약으로 만들어 변화가 필요한 한 분야 혹은 어떤 제도의 부정을 변혁하는 행동을 취하겠노라는 약속을 적게 한다.

애찬식 (25 분)

이제 애찬식을 준비하라.4 이 식사는 이것을 요한 웨슬레에게 소개했던 모라비안 교도(Moravians)들과의 경험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감리교회의 전통에 뿌리박은 기독교인 들의 각별한 교제의 표현이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노래하고 음식을 나누는 애찬식은 그리스도의 가족들이 공동체를 즐기는 부드러움으로 특징지어진다.

애찬식에는 어떤 엄격한 구조가 없다. 이것은 성령이 인도하시는 기도의 시간이며 참가자들이 즉석에서 성경을 읽고, 개인적인 간증을 하고, 간단한 음식과 음료를 나누고 그 곳에서 원하는 노래들을 부르는 것이다.

방의 한쪽을 치우고 의자들을 가능한한 친밀한 원형이 되도록 배치한다. 한 가지 제안을 하자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Here I Am, Lord” 찬송과 예배 263장)이라는 한인 연합감리교회 찬송가를 부르는 것이다. 이 찬송은 섬김과 증언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우리들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응답을 보여준다.

음식은 예배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조용히 나눈다. 다른 사람들이 음식을 나누는 동안 조용히 옆으로 전달한다. (이것을 성찬식과 구분하기 위해서, 빵과 포도주가 아닌 음식 예를 들어서 과자와 사과 주스 같은 것을 나눈다.)

이 애찬식의 마지막 나눔의 시간에 참가자들은 이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부른다고 느꼈는지 그리고 사회 정의를 위해 무엇을 하기로 헌신하였는지를 말하도록 초청한다.

마무리를 위해서는 “하늘의 새와 물고기”(“God of Sparrow God of the Whale”, 찬송과 예배 59 장)의 가사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기를 제안한다.

1. 하늘의 새와 물고기들, 별들의 반짝임, 하나님 지은 숨씨, 어떻게 찬양할까
2. 폭풍과 같이 지진같이, 주 나팔 울리면, 재앙이 임할때에, 우리를 구하소서
3. 무지개 언약 주셨도다, 십자가 하나님, 빈무덤 보이셨네, 어찌다 감사하리
4. 햇빛은 자들 다 나오라, 탕자의 하나님, 만물이 노래하네, 생명의 주 하나님
5. 이웃과 적이 구별없네, 공평한 하나님, 만물이 노래하네, 평화의 주하나님
6. 가까이 계신 만유의 주, 사랑의 하나님, 아이들 기뻐하네, 주님은 우리고향

1 - 데니스 린, 쉐라 파브리칸트 린, 매튜 린(Dennis Linn, Sheila Fabricant Linn, Matthew Linn) 공저, 빵을 베고 자는 잠. 당신에게 생명을 주는 것을 붙잡기(Sleeping with Bread. Holding What Gives You Life) (마화Mah wah/ 뉴욕: 파울리스트 프레스, 1995), 7쪽.

2 - www.facebook.com/groups/176134225738078/ 참조.

3 - 린다 블룸 (Linda Bloom), “평화상 수상자가 그녀의 빛을 말하다.” (뉴욕: 연합감리교회 뉴스 서비스, 2010).

4 - 연합감리교회 예배서(The United Methodist Book of Worship) (내쉬빌: 연합감리교회 출판국, 1992), 581쪽. 1월 30일자 인터뷰

참고도서 목록

(참고도서 목록은 따로 번역하지 않습니다. 독자들이 각주를 보고 원래의 제목이나 문헌을 참고하기 원하는 경우에는 참고 도서 목록을 참고해서 원문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 Bloom, Linda. "Peace Prize Winner Shines Her Light." United Methodist News Service,
- Gbowee, Leymah. *Mighty Be Our Powers: How Sisterhood, Prayer, and Sex Changes a Nation at War*. New York: Beast Books, 2011.
- Linn, Dennis, Sheila Fabricant Linn, and Matthew Linn. *Sleeping with Bread: Holding What Gives You Life*. Mahwah, NJ: Paulist Press, 1995.
- McLaren, Brian. *Finding Our Way Again: The Return of the Ancient Practices*. Nashville: Thomas Nelson, 2008.
- Nouwen, Henri. *Life of the Beloved: Spiritual Living in a Secular World*. New York: Crossroad, 1992.
- Pray the Devil Back to Hell*. Directed by Gini Reticker. 1 hour 12 min. New York: Fork Films, 2008.
- The United Methodist Book of Worship*. Nashville: The United Methodist Publishing House, 1992.
- The United Methodist Hymnal*. Nashville: The United Methodist Publishing House, 1989.

부록

삶의 훈련(Life Discipline)을 하기 위한 계획서

내가 매일 할 일들

(예를 들어서 성경 읽기, 영적인 독서, 일일 성찰, 묵상, 관상기도, 수련회, 기독교인의 모임, 성찬식, 금식, 영적 디렉터와 만남, 예배, 자비의 사역 등)

나는 다음의 일들을 하기로 결심한다:

매일:

매주:

매월:

매년:

저자 소개

팻 회르트(Pat Hoerth)는 연합감리교회의 여성 사역자(deaconess)이다. 그녀는 오클라호마 중북부에 위치한 터클 락 팜(Turtle Rock Farm)에 있는 치유, 영성, 환경 보존 센터의 영성 디렉터 겸 수련회 인도자로 섬기고 있다. 일간지 워싱턴 스타(The Washington Star)지의 전직 기자이기도 한 회르트(Hoerth)는 매일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에 주의를 기울이고 환경을 지키며 살 것을 배우라고 하는 글을 자신의 블로그인 www.turtlerockfarm.wordpress.com에 올리고 있다.

전에 회르트(Hoerth)는 오클라호마 주민 생활 위원회(Oklahoma Folklife Council)를 위해서 오클라호마 요리사들의 이야기와 요리 비법을 모아 편집하기도 했고 헨리 벨몬의 시대와 생애(The Life and Times of Henry Bellmon)의 공저자이기도 하다.

베키 도슨 라우터(Becky Dodson Louter)는 연합감리교회의 여 사역자인데 여사역자, 가정 선교사, 및 가정 선교 사무실(Offices of Deaconess, Home Missioner, and Home Missionary)을 책임지는 프로그램 담당 간사로 섬기고 있다. 뉴욕시와 테네시 주의 존슨 시 두 곳에 기반을 두고 살고 있다.

그 전에 라우터(Louter)는 켄터키 주의 입양 가정 및 임시 양육 가정들을 모집하고 교육하고 위기시에 지원하는 연합체를 돌보는 일을 하였다. 그녀는 또한 연합감리교회 은퇴사역자들 공동체와 연합감리교회 유관 대학들에서 일한 경력도 있다.

자비의 사역

자비의 사역들은 우리가 하나님과 경건의 사역들을 통해서 더욱 더 연결된 결과이다. 동시에 그것들도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을 돕는 영적인 훈련이다.

나는 다음과 같은 자비의 사역에 헌신 하겠다:

당신의 삶의 훈련의 계획을 세우라

내가 헌신하기로 한 삶의 훈련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내 스케줄의 어떤 부분을 바꾸어야 시간이 날까?

내가 혹 추가로 어떤 계획 단계를 거쳐야 할까? (예를 들어서 매년 수양회를 계획 한다든지 정기적으로 즉 내 생일날 같은 때 내 삶의 훈련을 점검한다든지 하는 일을 위한 계획을 세우는 일
